

## 脫 Heider的 常識心理學 模型의 探索的 提案

崔 祥 鎮

中央大學校 心理學科

### 1. 本稿의 目的

常識心理學이란 用語는 Heider (1944, 1958)가 말하는 “Naive Psychology”에서 가져왔다. 그러나 本稿에서 論하게 될 常識心理學의 뜻과 內容은 그 定義 및 內容領域의 面에서 Heider의 常識心理學보다 더 擴大된 即 “Beyond Heiderian Naive Psychology”를 指稱하며, 同時에 本稿의 目的은 擴大된 意味의 常識心理學을 建設的으로 構築해 보고 이를 體系化하는데 있다. Heider는 常識心理學이란 말을 그의 論文 “Social Perception and Phenomenal Causality (1944)”에서 최초로 使用했으며, 다시 그의 著書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에서 常識心理學 接近의 特徵 및 그 有用性에 대해 仔細히 論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分明히 해 두어야 할 점은, 그가 常識心理學이란 말을 使用하게 된 背景은 常識心理學을 하나의 獨立된 研究과라다임으로 定立시키거나 常識心理學의 理論的 體系化에 있었다기 보다는 對人知覺에 있어서 一般人的 歸因過程 研究의 必要性을 正當化 내지 부각시키는 수단으로써 常識心理學이란 概念을 創案해 냈다는 點이다. 물론 Heider는 常識心理學的 接近의 必要性을 歸因過程의 研究에만 局限시켜야 한다는 制限을 明白히 밝히지는 않고 있다.

비록 常識心理學이란 用語를 使用하지 않았어도 個人的 主觀的 知覺世界를 있는 그대로 研究해야 할 必要性을 내세우고 發展된 George Kelly (1955)의 私的 構成概念 心理學(Psychology of Personal Construct)도 그 本質的 接近方法面에서는 常識心理學의 性格을 짙게 反映하고 있으며, Kelly는 自身の 理論展開過程에서 自身の 接近方式을 주로 性格의 研究에 局限시키고 있다. 即 Kelly는 人間을 研究하는 한가지 方法은 一般人이 가지고 있는 內的 主觀的 世界를 研究하는 폭 넓은 基本立場을 取했다. 그러나 實際로 그의 私的 構

成概念 心理學은 性格의 研究 및 測定에 局限되어 왔다. Heider의 常識心理學도 基本立場에 있어서는 歸因過程을 넘어서 一般人的 全般的 社會行動의 研究에 適用되어야 한다는 點을 暗示하고는 있으나 그의 研究自體는 어디까지나 歸因過程에 局限되어 왔다. 즉 理論提案의 背景에서는 理論의 適用範圍를 비교적 포괄적으로 폭 넓게 잡고는 있으나, 實際의 研究內容領域이나 理論適用範圍에서는 歸因過程이나 性格의 研究에 局限했기 때문에 事實上 常識心理學自體를 獨立된 研究領域 및 理論體系로 構築하고 體系化하는일 自體는 그들의 關心焦點에 있지 않았으며 結果적으로 常識心理學의 理論體系를 構築하는데는 매우 疏略한 水準의 概念說明에 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이들이 常識心理學이란 用語를 使用할 當時만 하더라도 常識心理學的 接近과 關聯된 理論이나 接近方法은 아직 初步의 發展段階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Heider의 常識心理學은 研究領域의 面에 있어서는 對人知覺에 있어서의 歸因過程에, 接近方法에 있어서는 行動으로 부터 性格을 歸因하는 모델의 提示에 그쳤다. 그러나 定義에 있어서는 그가 常識心理學이란 用語를 使用하는 脈絡이나 그 定義를 보면 常識心理學이란 用語를 매우 폭 넓은 뜻으로 使用하고 있으며, 또한 그 말의 使用에서 比較的 抽象의 水準에 있어 常識心理學의 本質을 具體적으로 實體化하고 概念化, 體制化하는데는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常識心理學의 本質을 “Phenomenology of Average Person”이란 아주 抽象의인 用語로 表現하고 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Phenomenology”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것인가에 대해서는 具體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實際로 그의 研究內容을 보면, 그의 定義에서 말하는 “Phenomenology”는 一般人的 行動에 대한 原因分析(The cause-effect analyses of behavior made by man in the street)에 局限되어 있다.

Heider의 歸因理論은 Jones와 Davis(1965)를 거쳐 Kelley(1967)에 이르러 研究對象接近方法에 있어서 비약적 擴張이 이루어 졌고, 理論의 體系도 研究에 實際로 適用될 수 있도록 具體化되었다. 그러나 Heider와는 달리 Kelley一派의 接近은 自身들의 立場을 歸因理論에 局限시킬 뿐 常識的 心理學이란 더 폭 넓은 概念水準에서의 論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Kelley一派는 自身들의 接近方法이 Heider가 말하는 常識的 心理學에 더하고 있다는 簡略한 言及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Jones, et al., 1972, px 참조). 따라서 歸因理論自體는 Heider 이후 계속적 발전이 이루어져 왔으나 常識心理學의 概念定立 및 理論的 體制化는 各論의 水準에서는 發展이 있어 왔으나 總論의 水準에서의 理論定立은 Heider 이후 별 다른 發展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즉 心理學研究에서 하나의 獨立된 пара다임으로서의 概念化, 體制化의 努力은 미미하게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Heider 가 말하는 常識의 心理學의 2가지 特性 — 즉 1)一般인이 社會와 世界를 어떻게 知覺하는가를 즉 一般인이 世上을 아는 過程을 分析하고, 2)이 知覺過程을 常識의 用語로 記述하는 것 — 과 一致하거나 類似的한 立場을 擇하고 있는 理論이나 研究方法는 歸因分野 이외의 다른 分野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예컨대, 態度分野에 있어서 Bem의 自記知覺理論(Self-Perception theory, 1967), 性格分野에서 George Kelly의 私的 構成概念理論(Psychology of Personal Construct, 1955, 1963), 社會心理學 一般과 關聯하여 Stotland와 Canon의 認知要素理論(Schema theory, 1972), 印象形成에 있어서의 Bruner와 Tagiuri (1954), Cronbach (1955) 등의 潛在的 性格理論(implicit theories of personality) 등은 Heider 가 말하는 常識心理學의 前提나 方法論에 符合되는 理論으로 看做할 수 있을것 같다. 물론 위의 理論이나 研究方法의 提案者들은 自身들의 理論이나 方法을 常識의 心理學이라 稱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本稿에서는 常識心理學이란 表題는 달고 있지 않지만 常識心理學의 性格이나 接近方法을 이미 理論의 前提나 展開에서 潛在的으로 內包하고 있는 이들 理論이 어떻게 해서 常識心理學의 範疇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를 Heider를 탈피한 常識心理學의 試驗的 設定을 위해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들 理論의 概略的 內容紹介와 아울러 왜 常識心理學의 範疇에서 이들 理論들이 論議될 수 있는가에 대한 論據를 提示하고자 한다. 즉 이와같은 既存의 常識心理學 關聯理論에 대한 考察을 통해 現在의 狀況에서 常識心理學의 設定 根據를 過去志向의으로 照明해 보고, 이를 基礎로 하나의 獨立된 心理學의 한 分野 및 接近方法으로서의 脫 Heider 的 常識心理學을 探索的으로 設定해 보기로 한다.

## 2. 常識心理學의 理論的 前提

人間은 社會環境에 대해 受動的으로 反應하지만은 않는다. 周邊에서 일어나는 事象을 解釋하고, 概念化하고, 豫言하고, 統制하려 한다. — 마치 科學者가 그러듯이 — . 이러한 周邊事象에 대한 知覺, 解釋, 概念化는 行動에 影響을 미치고, 그 行動의 結果는 다시 既存의 知覺 및 認知的 世界를 再構成하는데 逆投入(feed-back)되는 循環過程을 밟는다(Kelly의 Personal Construct Psychology의 基本過程을 要約한 것임).

Heider는 歸因理論과 關聯해서 常識의 心理學의 세가지 前提를 들고 있다. 첫째, 一般인이 社會의 世界를 어떻게 知覺하는가를 記述하는일 自體가 바로 日常人의 社會的 行動을 理解하는 것이라는 前提, 둘째로는, 사람들은 自身이

處한 環境을 豫言하고 統制하려는 欲望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세째로, 事物을 知覺하는 過程과 사람을 知覺하는 過程은 根本的으로 類似하다는 前提를 하고 있다. 따라서 事物知覺에 있어서 恒常性(Constancy)을 形成하는 것과 같은 不變性(invariance)의 知覺이 對人知覺에 있어서도 可能하다고 믿고 있다. Heider가 自身の 接近을 常識的 心理學이라 稱하는 重要한 理由中的의 하나는 Heider의 接近이 平均人(一般人)의 現象學(Phenomenology of the average person)에 더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Heider의 常識心理學은 一般人的의 思考나 知覺의 過程을 常識人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常識的 水準에서 體系化하는 것이라 要約될 수 있다.

人間의 社會的 知覺과 認知의 過程과 關聯해서 세가지 注目해 둘 事項이 있다. 첫째는, 認知過程에서 外的 事象을 그저 知覺된 그대로 登錄(register)해 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直接 認知되거나 知覺되지 않은 即 事象의 背後에 있는 現象에 對해서도 “미루어 짐작하는”, 예컨데 原因을 推論해 내는 일 까지도 同時에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예컨데 Jones, et al., 1972, PX참조). 이와같은 特定한 行動이나 行動의 結果를 보고 그 原因을 分析해 나가는 過程은 어떤 意味에서 科學者가 知識을 追求해 나가는 過程과도 一脈相通한다. 물론 一般人이 行動의 原因을 分析해 나가는 過程은 客觀性, 緻密性, 計劃性, 正確性의 面에서 科學者를 따르지 못한다(Stotland and Canon, 1972, p.33; Kelly, 1963, p.4; Hastorf, et al., 1970, p.63).

둘째는, 個個의 具體的 經驗의 認知化를 넘어서, 여러가지 社會的 事象間의 關係性에 關한 法則을 이끌어 내는 일을 同時에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키가 작은 사람은 性格이 急하다던가, 가까운 이웃이 친척보다 낫다던가, 여자는 남자에 비해 의지가 약하다던가 하는 등 여러가지 社會的 事象에 대한 나름대로의 秩序를 學習해 나간다는 것이다. 물론 이와같이 把握된 關係性의 法則에 대한 知識이 人間의 社會的 適應을 도울 수도 있고 또 反對로 妨害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가지 明白한 事實은 法則性에 대한 認知가 그 個人의 行動에 潛在的 影響을 미치고 있다는 點이다.

세째는, 이와같은 事象間의 法則性을 이끌어내는 過程에서 偶然에 依한다기 보다는 어떤 前提나 公式 또는 理論에 더하고 있다는 點이다. 한가지 基本的 前提의 例로 一貫性 前提(또는 原理)(Consistency principle or assumption)를 들 수 있다. 어떤 個人이 똑같은 經驗을 되풀이 할 때 즉 事象間의 關係性에 一貫性이 있을때, 이는 法則으로 認知될 可能性이 크다. 예컨데, 어떤 사람이 키가 큰 사람을 대할 때 마다 키가 큰 사람은 언제나 싱거운 소리를 하는 것을 發見할 때, 그 사람은 키가 큰 것과 싱거운 소리와의 關係性에 대한 法則을 推論해 낼 可能性이 크다. 또 하나의 例로 意見一致原理

(consensus principle)가 있다. “머리가 큰 사람은 머리가 좋다”고 여러 사람이 믿고 있다는 것을 어떤 사람이 알게 될 때, 그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은 머리가 크다”는 關係性法則을 習得할 可能性이 크다. 물론 이와 같이 簡單한 基本的 原理나 前提뿐 아니라 좀 더 複雜한 形態의 公式이나 理論도 있을 수 있다.

위에서 言及된 세가지 形態의 認知過程은 반드시 意識水準에서 自己自身에 依해 認知되거나 意志의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日常生活에서 이와같은 過程은 無意識, 無意圖의으로 일어나기 쉽다. 常識의 心理學은 바로 이와같은 意識的, 無意識的 認知過程을 社會的으로 意味있는 行動과 關聯지워 解明해 나가는 立場을 取한다. 即 常識心理學은 社會心理學的으로 意味있는 行動, 知覺, 思考, 信念, 態度和 關聯된 一般人的 認知過程을 있는 그대로 描寫해 내는 認知的 接近法의 한 類型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있는 그대로 描寫해 낸다”는 表現은 다음과 같은 常識心理學의 두가지 方法論的 特性을 暗示하고 있다. 첫째, 常識心理學에서는 人間行動(思考, 態度, 信念 등을 포함한 넓은 意味의)을 科學的 心理學理論 —— 예컨대 學習, 動機, 社會化, 態度, 集團力學 등에 關聯된 諸 心理學的 理論을 말 함 —— 에서 使用하는 複雜한(Sophisticated), 專門的(Professional)概念이나 理論體系를 導入해 이를 가지고 一般人的 行動을 덮어 씌워(impose upon) 說明하는 立場 보다는, 오히려 一般人的 認知過程 自體를 있는 그대로 充實하게 描寫해 내는 方法을 채택하려고 한다는 點이다. 이와 關聯해서 둘째로는, 使用하는 用語나 概念에 있어서도 專門的 用語라기 보다는 日常人이 使用하는 用語나 概念體系를 가능한한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文字 그대로 一般人的 心理學이 되도록 하는 立場을 強調한다는 點이다.

### 3. 常識心理學 接近의 合理化 : 人間行動 研究方法으로서의 可能性 및 他接近方法과의 關係性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常識心理學이란 말은 歸因理論이나 潛在的 性格理論과 같은 社會心理學的 特定理論 또는 接近方式을 正當化시키는 過程에서 부수적으로 借入한 概念으로 출발했다. 따라서 常識心理學的 接近이 왜 必要하며, 또한 무엇이며, 接近上의 特徵이 既存의 社會心理學的 接近方法과 어떻게 다른가를 明細하고, 理論的인 水準에서 常識心理學을 하나의 獨立된 接近方式으로 統合하고 綜合的으로 體系化하는 일은 比較的 等한히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이 常識心理學 自體를 定立하는 일을 소홀히 한 背景중의 하나는 常識心理學이란 概念을 使用해 왔던 理論家나 研究者의 主 關心이 常識心理學 自體

를 하나의 獨立된 研究接近 пара다임으로 구축하는데 있었다기 보다 자신들이 提示한 特定理論이나 假說을 正當化시키는 方法으로 常識心理學的 接近을 導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思料된다. 그러나 本稿에서는 이들과는 반대로 特定理論의 正當化 手段으로서 常識心理學을 論하는 일에 主 關心이 있기 보다는 常識心理學을 하나의 獨立된 研究方法으로 體系化하고 구축하는데 主 目的을 둔다. 따라서 常識心理學의 設定根據를 먼저 提示하고, 다음으로 常識心理學의 範疇에 포함될 수 있는 理論들을 考察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常識心理學의 領域 및 接近方式 等を 脫 Heider 的 立場에서 探索해 보기로 한다.

現代의 心理學은 心理學者들만의 心理學이라 해도 過言은 아니다. 專門的 術語에서 부터 理論의 複雜性에 이르기 까지 高度로 複雜化(Sophisticated) 되고 專門化되어서 一般人이 心理學을 理解하기란 극히 힘들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점에 착안해 “Psychology Today”란 雜誌는 專門的 心理學을 比較的 쉬운 用語로 使用해 心理學의 大衆化를 기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心理學에서 쓰여지는 用語나 概念體系가 日常人에게 難解하고 생소한 理由는 學問 自體가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가피한 “說明의 經濟性” 때문일 것이다. 즉 複雜한 人間行動의 現象에서 簡明하고 包括性있는 規則이나 法則性을 이끌어 내야 하는 學問自體의 性格때문 일 것이다. 說明이 包括的이란 말은 곧 說明의 經濟性을 意味하며, 包括의이고 經濟的인 說明이 되기 위해서는 使用되는 概念이나 理論體系가 高度의 抽象性(abstraction) 내지 專門性이 불가피하게 요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點에서 오늘날의 心理學이 一般人에게는 생소한 學問體系로 專門化되어가는 現象은 肯定的 側面에서 理解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學問體系의 專門化 傾向이 心理學의 諸 分野에서 반드시 불가피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學習이나 生理心理學의 경우에서처럼 人間の 心理現象을 客體로 놓고 刺戟과 反應과의 關係를 추구해 나가는 소위 自然科學의 接近方法이 效果的이고 또 同時에 불가피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社會心理學에 있어서는 境遇가 좀 다를 수 있다. 社會心理學은 사람 間의 相互作用에 關心을 가지고 있다는 點에서 意味의 相互作用(Symbolic interaction)이 行動決定에 重要な 要因으로 부각된다. 따라서 한 個人이 外的 刺戟을 어떻게 意味化 내지 解析하느냐에 따라 그 個人의 反應樣式이 달라질 뿐 아니라 經驗의 累積을 통해 얻어진 社會的 現象에 대한 一般人 個個人의 “社會心理學”이 그 個人의 行動에 影響을 미친다는 것이다. 例컨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등을 두들겼다. 하자. 이와같이 등을 두드리는 刺戟의 意味는 A와 B와의 關係, B가 處한 狀況에 따라 稱讚이나 好感을 意味할 수도 있고, 경멸이나 모멸을 의미할 수 있다. 이 때 A가 提供한 두드리는 刺戟에 대한 B의 反

應 및 行動은 그 刺戟을 B가 어떻게 解釋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뿐만 아니라 오랜 經驗을 통해 一般人은 自己 나름대로의 “社會心理學的 假說”을 가지고 있다. 例컨데, “남에게 자기 자랑을 너무 많이하면 다른 사람이 흉보기 쉽다” 든가, “여자는 마음이 간사하다” 등 수없이 많은 나름대로의 社會心理學的 知識體系를 가지고 있으며, 이와같은 知識體系는 그 個人의 社會的 行動에 潛在的 및 實際的 影響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社會心理學에 있어서의 個人은 外的 刺戟에 대해 受動的으로 反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刺戟을 자기나름대로 解釋하고, 自己內에서 刺戟을 創造하고 더 나아가 刺戟 間 또는 社會的事象 間의 關係性的 法則까지도 이끌어 내기도 한다. 이러한 點에서 社會心理學에서는 個人의 社會的 認知過程을 現象的으로 研究하는 接近方式이 學習이나 生理心理學에서 強調하는 自然科學的 接近과 더불어 동시에 必須的인 獨立的 研究接近의 하나로 그 必要性이 부각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常識心理學은 一般人이 經驗하는 認知過程 및 認知內容을 있는 그대로 常識的 用語를 使用해 體系化하려는 立場을 強調하고 있다는 點에서 心理學的 一般化 즉,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心理學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같이 學問自體가 日常人이 理解할 수 있도록 日常人에게 適應해 나가는 立場은 學問的 方法論에서 一種의 Copernicus 的 革命이라 할 수 있다. 이와 關聯해서 方法論上의 두번째 特徵은 自然科學的 S—R 패라다임에 대한 하나의 補完的 接近이 될 수 있다는 點을 들 수 있다. S—R 패라다임에 맞서 認知的 接近이 最近에 강력한 세력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刺戟과 反應과의 關係를 說明하기 위한 假說的 說明概念 水準에서 認知를 다루려는 傾向이 社會心理學分野에서 濃厚하다. 例컨데 認知均衡理論이나 認知不均衡理論에서의 不均衡狀態는 說明的 概念水準에 머무를 뿐, 不均衡狀態를 認知的 水準에서 測定 또는 具體的으로 그러한 狀態의 認知構造를 寫印(print out)해 내려는 努力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같은 傾向은 현재 社會心理學的 接近方法을 일별해 볼 때 認知構造나 狀態를 存在하는 狀態 그대로, 現象學的 立場에서 寫印해내는 方法論이 여기서 말하는 常識心理學的 理論이나 接近을 除外하고는 — 例컨데 Kelly의 REP test, Kelley의 原因分析模型(Causal-Schemata) 등 — 찾아 보기 힘들다는 點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常識心理學은 認知構造나 過程 自體를 現象的으로 把握하려 한다는 點에서 S—R 心理學은 물론 餘他的 認知的 接近에 대한 補完的 接近方法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複雜하고 體系적이고 專門화된 正統心理學을 가지고도 接近하기 어려운 社會的 行動을 研究하는데 있어 常識心理學的 接近法이 과연 可能하고 實效를 거둘 수 있는가 하는 疑問은 한번 提起해 봄 직 하다. 이 疑問에 대한 對答은 다음의 두가지 側面에서 論議해 볼 수 있을것 같다. 첫째로, 우리는

周邊에 있는 數 많은 사람들과 여러가지 事象에 대해 繼續的으로 意思를 交換하고, 知識을 서로 나누고, 自身の 생각이 옳고 그름을 他人의 생각과 對照해 가며 檢討해 나간다. 따라서 동일한 文化권에 있는 사람들 간에는, 또 서로 가까이 접촉해 가며 살아가는 사람들 間에는 思考나 行動樣式에 있어서 어느 程度의 同質性 및 共通點을 形成하게 된다. 따라서 한 지역이나 文化권에 사는 사람들 間의 機能的 相互作用(functional interaction)이 촉진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一般인들이 共有한 知識이 科學的으로 妥當하나 妥當치 않느냐는 차치하고, 共有된 知識이 그들 相互間의 相對行動에 대한 解釋은 물론 相互作用에 대한 期待樣式과 反應樣式에 同質的 規範을 形成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Asch의 見解를 引用하면

The paramount fact about social interaction is that the participants stand on common ground, that they turn toward one another, that their acts interpenetrate and regulate each other. (Asch, 1952, p.163).

對人相互作用에 있어서의 바로 이와같은 象徵 즉 一般人들 間에 共有된 知識要素가 있다는 점, 이와같은 知識要素는 相互作用을 通해 形式, 檢證, 變化되어가고 있다는 점, 또한 이와같은 共有된 知識이 相互作用에 있어서의 相互期待와 反應樣式에 대한 規範으로 活用하고 있다는 點이 바로 一般人의 常識的 知覺 및 認知體系에 대한 研究 즉 常識心理學 接近方法을 必要케 하고 可能케 한다. 만일 一般人의 認知內容이나 過程이 사람에 따라 모두 다르거나, 社會的 知覺이 對人相互作用에 關與되지 않는다면 常識心理學的 接近은 불필요하고 또 現實的으로 不可能하다 하겠다.

둘째 로는, 常識心理學的 接近方法이 現實的으로 社會心理學 研究 특히 社會的 知覺에 關한 研究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는 點이다. 例를들면 Kelley一派는 歸因理論의 接近을 印象形成 및 對人知覺分野는 물론 心理治療(Valins & Nisbett, 1972), 言語心理學(Kanouse, 1972)에 이르기 까지 適用시키고 있으며, Stotland와 Canon은 常識心理學的 立場과 一致하는 認知要素理論으로 社會心理學 全般을 再構成(Stotland & Canon, 1972)하는 등 常識心理學類의 接近이 最近 社會心理學에서 重要的 位置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엄격히 말해 常識心理學과 常識心理學 아닌것 즉 正統 專門心理學(Professional Psychology)이 質的인 水準에서 差異가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強調點의 差異에 있다고 보는 것이 더 妥當할 것 같다. 現實的으로 社會心理學分野에서 發達되어온 發見이나 假說 또는 命題 가운데 常識人의 認知的 過程이나 內容을 常識的 用語로 평이하게 記述하는 類型의 것도 적지 않다. 예컨대 對人好感에 있어서의 態度類似性-好感(attitudinal similarity-attract-



ion)假說이라든가,集團化(affiliation)에 있어서 恐怖—集團化(fear-affiliation)假說이라든가,態度에 있어서의 均衡理論(balance theory) 등은 常識心理學의 知識體系와 상당한 類似性을 가지고 있을뿐 아니라, 常識心理學의 接近法으로 쉽게 再解釋될 수 있는 可能性을 다분히 가지고 있다고 보아진다. 부연하면 常識水準에서 理解될 수 있는 社會心理學的 理論,假說,發見,命題는 常識心理學的 概念體系에서 再解釋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歸因理論의 Kelley一派들은 “Attribution(1972)”이란 그들의 著書 序文에서 歸因理論과 類似한 接近(orientation)을 使用하고 또 歸因理論의 基礎가 된 理論 및 研究로 Festinger(1954)의 社會比較理論(Social comparison theory), Schachter(1959)의 恐怖—集團化研究, Gerade와 Rabbie(1961)의 情報模糊性—集團化에 관한 研究, Bem(1965, 1967)의 態度에 있어서의 自己知覺(self-perception)理論 등을 들고 있다. 이는 곧 常識心理學의 한 부류인 歸因理論과 몇몇의 既存 社會心理學 理論과의 사이에 큰 質的인 差異가 있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看做될 수 있다.

#### 4. 常識心理學 部類의 理論考察

앞서 指摘한 바와 같이 理論의 提案者 自身들이 常識心理學임을 明白하게 표방한 것은 歸因理論 뿐이라고 보아진다. 그러나 本 考察에서는 常識心理學의 觀點이나 特性和 一致하거나 類似하다고 思料되는 餘他 理論들 예컨데, Kelly(1955)의 主觀的 構成概念 理論, Stotland와 Canon(1972)의 認知要素 理論, Abelson과 Rosenberg(1958)의 記號論理 理論, Bruner(1954) 등의 潛在的 性格 理論 등을 常識心理學의 範疇에 넣고 동시에 要約考察하되, 그 過程에서 여러 理論들이 각각 어떤 面에서 常識心理學的 性格을 띄고 있는가를 밝혀 나가기로 한다.

이와 같은 要約考察의 主目的은 1) 現在로서 常識心理學의 테두리를 정하고, 2) 그 發達狀況을 理論內容의 側面, 理論의 適用範圍 및 發達過程의 側面에서 分析하고, 3) 앞으로 必要할 研究方向에 대한 提示를 하는 데에 主目的이 있으며, 끝으로 새로운 常識心理學的 接近의 한 例示를 시도해 보고자 하는 데 있다.

##### 1) Abelson과 Rosenberg의 心理的 記號論理(Symbolic Psychology) 理論

認知—貫性 理論(cognitive consistency theory)의 新봉자인 Abelson과 Rosenberg는 態度形成과 관련해서 認知過程이 一貫性을 成就하는 過程에서

作用하는 原理 및 法則을 發見하기 위해 가장 體系性있고 깊숙하게 研究한 사람들이다.

그들의 理論은 感情的 判斷의 色調가 갖는 態度類關의 認知要素(attitudinal cognitions) 相互間에 一貫性을 維持하고 成就시키려는 動機가 人間에게 存在한다는 假定을 하고 있다는 點에서는 餘他の 認知一貫性(cognitive consistency) 理論이나 認知不協和(cognitive dissonance) 理論과 一致한다.

그러나, Festinger의 認知不協和 理論이나 Heider의 均衡理論(Balance theory)에서 認知的 構造를 記述하는 데에 比較의 소홀히 하고 있다는 點을 批判하면서, 態도와 관련된 認知要素의 構造들을 現象의으로 記述하는 方法과 아울러 認知構造化 과정에서 一貫性을 維持하고 成就시키는 데에 作用하는 心理的 原理 및 法則을 複寫해 보려는 試圖를 했다.

그의 이와 같은 立場이 常識心理學과 어떻게 관련되는가는 그의 論文 “Symbolic Psychologic: A Model of Attitudinal Cognition(1958)”의 序에서 잘 表現되고 있다.

When Euler taught logic to the process by drawing the overlapping circles and circles within circles, he was also illustrating the well-known fact that human beings have to learn the principles of formal logic. They do not, it is generally agreed, always or even often think logically. So, if behavioral scientists are to study and understand the process of ordinary, everyday thinking, they must develop new approaches, including the recognition that thinking is colored by emotional attitudes .....

위에서 밑줄쳐진 文句가 나타내듯이 그들은 “學으로서의 論理”와 一般人이 使用하는 “心理的 論理”를 구분하고 있으며, 行動科學者들이 一般人의 思考를 연구하려면 一般人의 心理的 論理를 알아내는 接近法을 開發해야 된다는 信念을 피력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一般人의 態도와 관련된 思考論理를 心理的 論理의 8개 規則으로써 提示하고 있다. 예컨대,  $A_p B = B_p C$ 는  $A_p C$ 를 뜻하며,  $A_p B = B_n C$ 는  $A_n C$ 를,  $A_n B = B_n C$ 는  $A_p C$ 를 뜻한다는 등과 같이 一般人의 思考論理의 過程을 常識의 水準에서 體系化시키고 있다. 그들은 이와 같은 科學的 論理가 아닌 常識的 論理를 態도와 관련된 思考過程에만 局限시키려는 조심성있는 立場을 취하고 있다. 더불어 그들은 이와 같은 8개의 一般人의 思考論理規則을 적용하여 認知不一貫性(cognitive inconsistency)의 狀態를 說明하고, 더 나아가 數學의 시스템을 적용하여 一般人이 認知不一致 狀態를 一致狀態로 轉換시키는 認知過程을 비교적 간단한 數學的 시스템으로 說明하고 있다.

Abelson 이나 Rosenberg 자신들은 自身들의 心理的 論理를 常識心理學的

接近이라는 점은 강조하거나 明白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그들의 基本立場이 一般人的 心理的 論理의 法則을 現象的으로 記述하려고 試圖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나타난 心理的 現象의 法則과 態度的 認知(attitudinal cognitions)의 構造를 分析的으로 다루고 있는 數學的 모델로 一般人的 思考過程을 비교적 알기쉽게 常識的 水準에서 記述하고 있다는 점에서 常識心理學의 範疇에서 다루어져야 될 것으로 본다. 즉, 그들은 態度和 관련된 認知要素 間의 綜合, 分離, 演繹의 常識的 法則의 發見을 試圖하였다고 볼 수 있다.

## 2) 印象形成에 있어서의 潛在的 性格理論(implicit personality theory)

他人에 대한 制限된 情報를 가지고 豊富한 印象을 形成해가는 現象을 說明하려는 努力이 Asch 를 비롯한 印象形成의 研究者들에 의해 오랫동안 연구되었다. 이와 같은 制限된 情報를 즉, 不足한 資料(missing data)를 가지고 體系있는 印象을 形成하는 것은 知覺者가 印象形成 過程에서 不足한 情報의 틈(gap)을 推論(inference)에 의해 메꾸어 나가고 있다는 데에 많은 研究者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다(예컨대, Bruner & Tagiuri, 1954 ; Wishner, 1960).

따라서, 여러 學者들의 關心의 주된 方向은 어떠한 根據와 過程을 통해 그러한 推論이 可能한가로 좁혀졌다. 그 중에도 Bruner 와 Tagiuri 는 이와 같은 推論은 知覺者가 오랜 社會化 過程을 形成함은 知覺者 나름대로의 潛在的 性格理論에 의해 가능하다고 보았다. 예컨대, 知覺者에게 어떤 사람의 性格이 “따뜻하다”는 情報만을 제공했을 때, 知覺者는 “따뜻하다”는 性格特性을 가진 사람은 幸福하고 賢明할 것이다 등과 이와 共存하는 여러가지 性格特性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前提를 즉, 相關된 性格特性의 마트릭스(matrix)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서 이것에 의해 제한된 주어진 情報를 가지고 完熟한 形態의 印象을 形成해 나간다는 것이다. 즉, 知覺者는 자기나름대로의 性格理論을 — 비록 分明하지는 않지만 — 가지고 있으며 이것에 의해 推論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潛在的 性格理論의 研究는 一般인이 가지고 있는 潛在的 性格理論의 構造들을 밝혀내는 데 關心의 焦點을 두었다.

그리하여 性格特性相關의 相關關係行列表(correlation matrix) (Wishner, 1960), 좀더 나아가 相關關係行列表에 기초한 要因分析이나 重多次元測定法(multidimensional scaling)에 의해 性格特性 相互相關關係의 根源의 次元을 밝히려는 努力들이 뒤따라 일어났다(예컨대, 重多次元測定の 研究로는 Jackson, Messick and Solley, 1957 ; Jackson, 1962 ; Lay and Jackson, 1969 ; Rosenberg, et al., 1968 ; 要因分析 研究로는 Passini and Norm-

an, 1966 등이 있다).

潛在의 性格理論에 대한 代表的 研究의 方向 및 發見은 주로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다. 印象形成者들이 다른 次元에 立脚해서 印象을 形成할 뿐만 아니라(Cronbach, 1955), 學校寄宿舍에서 오랫동안 相互作用을 하며 지내는 fraternity group의 학생들 간에는 비교적 類似한 性格次元에 立脚하여 印象을 形成하며(Norman, 1963), 知覺者는 印象形成의 對象者들을 잘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간에 비교적 同一한 次元에 기초하여 印象을 形成하려는 傾向性이 있음을 발견했다(Hakel, 1969).

한편, Koltuv (1962)는 앞서 논의된 Norman의 關心 즉, 集團一般의 共通의 潛在의 性格理論과는 달리 個個人的 潛在의 性格理論에 대한 研究를 通해 個個人的 知覺者에 대해 各各 다른 性格特性 間의 關係性 패턴(Pattern)을 찾아 내었다. 또한 性格特性 間의 關係性 즉, 潛在의 性格理論은 잘 아는 사람 보다는 잘 모르는 사람을 평가할 때에 더욱 強하게 作用한다는 結果를 얻었다. Koltuv 외에도 性格特性의 意味上的 相互關係性(implicative relationships among traits)이 個人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研究結果는 많다(Walters and Jackson, 1966; Messick and Kagan, 1966; Shapiro and Tagiuri, 1959). 이밖에도 潛在의 性格理論의 아이디어를 間接적으로 支持하는 研究는 앞서 記述한 바와 같이 印象形成에서 中心的 特性(Central traits)의 강한 영향력을 說明하기 위해 中心的 特性을 包含한 여러 性格特性들 間의 相關關係의 研究, 이와 같은 相關關係에 기초한 要因分析 및 重次元測定法에 의해 性格特性 相互關係性의 主要次元을 기술하기 위한 研究들이 있다.

지금까지의 論議를 要約하면, 첫째, 潛在의 性格理論의 研究는 印象形成과 관련되어 發展하기 시작했으며, 둘째로, 潛在의 性格理論이 印象形成에서의 不足한 資料를 補充시키는 作用을 하며, 셋째로, 潛在의 性格理論의 有用性 및 妥當性을 直間接적으로 뒷받침하는 研究結果는 다양하고 많다. 그러나, 潛在의 性格理論의 組織構造를 包括적으로, 存在하는 그대로 記述하고 있는 研究가 없다는 점과 이러한 理論의 組織的 體系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 아직 이 分野의 研究는 有用性 및 妥當性을 變호하고 있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看做할 수 있을 것 같다.

### 3) 歸因理論(Attribution Theory)

歸因理論은 Heider의 常識心理學과 脈絡을 같이 하고 있다. 常識心理學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立場에서 出發한다. 첫째는, 常識人(또는 一般人)은 비록 科學者는 아니지만 마치 科學者가 自然現象이나 人間의 社會的 現象에 대한 原因을 分析하고, 解析, 說明하고 概念化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常識人 나

름대로 分析, 解析, 說明, 概念化 해나간다는 것이다. 勿論, 常識人的 그것이 科學者들의 作業처럼 詳細하고 科學的인 것은 못되며, 또 常識人的 그것이 妥當하지 않을 確率(確率)이 많기는 하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思考過程 및 結果에 따라 知覺하고 行動하게 될 確率(確率)이 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研究의 必要性이 부각되는 것이다. 둘째로는, 一般人的 社會的 行動의 現象的 記述이라는 점이다. 즉, 專門家の 立場에서 體系的 學問體系를 통해 日常人的 行動을 理解하려는 立場보다는 日常人이 知覺하고, 思考하며, 經驗한 그대로를 즉 經驗 그 自體를 生生하게 觀察하고 記述하는 데 目的을 둔다. 常識心理學이 個人的 常識水準의 知覺 및 經驗을 爲主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現象學的(Phenomenological) 方法論과 一脈相通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Heider(1944, 1958)에 依해 提唱된 歸因理論은 밖으로 나타난 自身과 他人의 行動 및 行動의 結果를 보고 一般人이 그들 나름대로 그 行動의 原因을 分析해 나가는 過程을 밝히려는 데에 目的을 두고 있다. Heider는 자기의 立場이 行動의 原因과 結果를 專門家가 아닌 一般人이 分析하는 形態 그대로 밝히려는 데에 目的을 두고 있다는 점과 一般人的 分析內容 및 方法을 常識的인 水準에서 常識的인 用語로 記述한다는 점에서 “一般人的 心理學(naive psychology)”라고 命名했다.

Heider의 行動의 原因—結果 分析의 現象學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즉, 知覺者의 基本的 目的은 밖으로 나타난 事象의 밑에 깔려있는 構造(Structure)를 理解하는 일이며, 對人知覺者(Person-Perceiver)는 보통 觀察된 行動을 밑받침하는 恒常性의 原因(invariants)을 發見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發見의 과정에서 知覺者는 自身の 推理에 依存하는 수 밖에 없으며, 또 한 얼마나 複雜한 推理를 하느냐는 個人的 知識 및 必要性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한편, 그는 行動의 原因을 行動하는 사람의 內部的 原因(예컨대, 性格, 意思 등)과 個人 外的 原因 즉 環境의 原因으로 大分하고, 이어 行動의 原因을 行爲者의 內部로 歸因하는 데에 考慮되는 두가지 側面을 첫째, 行爲者의 能力(can)與否와 둘째, 行爲者의 努力(trying)與否로 들고 있다. 따라서 行動의 原因이 內部에 있느냐 또는 外部에 있느냐를 推論해내는 데에 있어 一般人的 外部의 힘, 個人的 能力과 努力 등의 相對的 力動性을 分析한다는 것이 Heider 理論의 主題이다. 그러나 Heider의 理論은 歸因理論에 대한 基本的 着想的 誘發에는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나 具體的·體系的 水準에서 概念化가 이루어지지 않아 現實的 事態에서 行動을 豫言하기에는 不足하다(Hastorf, et al., 1970).

Jones와 Davis는 Heider의 着想을 修正하고 補完하여 他人의 行動을 보

고 性格을 推論해 나가는 과정을 說明하는 모델 즉, From-Acts-to-Dispositions (1965) 모델을 考案해 내었다. 이 모델에서는 一般人이 겉으로 나타난 行動을 觀察을 통해 行爲者의 行動意圖性을 把握하는 데에 관련되는 두가지 側面을 들고 있다. 첫째는 行爲者의 能力(Can)與否와 둘째는 行爲者의 行爲結果에 대한 事前豫期 與否이다. 즉, 밖으로 나타난 行動이나 行動의 結果를 偶然이나 外部的 힘이 아닌 個人的 意圖性으로 歸因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行爲者가 그와 같은 行動이나 行動의 結果를 招來시킬 수 있는 能力이 있는 것으로 知覺되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그 行動이 가져오는 結果를 知覺者가 豫見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위에서의 行爲者의 行爲結果에 대한 豫見이 行爲의 意圖性을 歸因하는 데에 있어서 必須條件의 하나가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어떤 行爲를 意圖적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 대개는 그 行動의 結果가 어떻게 되리라고 기대한다. 이 말은 곧 어느 特定 行爲의 結果에 대해 行爲者가 알고 있지 못할 경우 그 行爲를 行爲者가 意圖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게 된다는 推論을 낳게 한다(常識적인 水準에서). 따라서, 行動結果에 대한 豫期가 行動의 意圖性을 推論 즉, 歸因하는 데 하나의 必須條件이 된다.

또한 Jones 와 Davis에 의하면, 對人知覺者의 推理過程은 特定行爲에 대한 行爲者의 意圖性 與否를 파악하는 것에 끝나지 않으며, 아울러 對人知覺者는 行爲者의 意圖性 보다 더 不可變의 個人特性인 行爲者의 性格이나 價值觀을 行爲者의 意圖性에 기초하여 推理해낸다(日常인의 경우 行爲者의 價值觀이나 性格이 意圖性 보다 더욱 그 個人的 恒常의 特性(invariant characteristics)을 代表하는 것이라고 知覺한다). 예컨대, A라는 사람의 行爲가 攻擊的 意圖를 가지고 하는 行爲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잦으면, 對人知覺者는 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A라는 사람을 攻擊的 性格이나 價值觀의 所有者로 看做하게 된다. 즉, 對人知覺者는 밖으로 나타난 行動에서 行動의 結果에 대한 觀察로 부터 시작하여, 그 行動의 意圖性을 推論하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의 性格, 價值觀을 推論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Jones 와 Davis의 “From-Acts-to-Dispositions” 모델의 主題인 것이다. 그러나 Heider, Jones 와 Davis, Hastorf, Schneider, Polefka 등은 모두 이와 같은 歸因의 實際過程(actual process)이 歸因者에 의해 明白히 知覺되거나, 明白한 目的意識 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假定하고 있다.

한편, Jones 와 Davis는 “行爲로 부터 性格”이라는 推理모델에서 推論의 確信性의 程度를 나타내는 데 相應度(correspondence)라는 用語를 使用했다. 즉, 1) 推論된 意圖性이 나타난 行爲를 說明하는 程度, 2) 推論된 性格特性(性格 또는 價值觀)이 意圖性을 說明하는 程度, 3) 좀 더 나아가 推

論된 性格特性이 行爲를 說明하는 程度를 ‘相應度’라고 表現하고 있다. 相應度 즉, 內的 歸因(internal attribution)의 程度는 1) 行해진 行爲의 結果가 社會的 規範과 相異하면 相異할 수록, 2) 行爲의 結果에 대한 可能的 解析(性格特性이나 意圖性和 관련해서)의 수가 적으면 적을 수록, 3) 他人의 行動이 知覺者의 利害關係에 관련이 많으면 많을 수록, 4) 他人의 行動이 知覺者 自身에게 影響을 미치려고 하는 意圖된 程度가 強하면 強할 수록 相應度가 增加한다고 Jones 와 Davis 는 報告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Heider 의 모델의 原型이나 Jones 와 Davis 의 修正모델과 直間接的으로 相關된 研究는 많다. 이들 研究들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大分될 수 있다(See Hastorf, et al., p.70) : 1) 內的 또는 外的 歸因에 相關 研究(Perceptions of internal and external causality), 예컨대, Thibaut and Riecken, 1955 ; Thibaut and Kelley, 1959 ; Hastorf, et al., 1965 ; Strickland, 1958 ; Johnson, et al., 1964 ; Streufert and Streufert, 1969 ; Kite, 1964 ; Polefka, 1965 ; Gross, 1966 ; etc., 2) 成功이나 失敗事態에 있어서 能力(ability)과 努力(trying), 知覺에 相關 연구, 예컨대, Kite, 1964 ; Rothbart, 1968 ; Jones, et al., 1968, 3) 行動의 責任所在 歸因(attribution of Responsibility)에 相關 연구, 예컨대, Shaw and Sulzer, 1964 ; Shaw, 1967, Sulzer and Burglass, 1968, 4) 態度的 歸因(attribution of attitude)에 相關 연구, 예컨대, Jones and Harris, 1967 ; Steiner and Field, 1960 ; Eisinger and Mills, 1968 ; Dickoff, 1961 ; Landy and Aronson, 1968 ; Schneider, 1965 등을 들 수 있다.

Heider 및 Jones and Davis 에 의해 씩이 뜬 歸因理論은 후에 Kelley 및 그의 동료 등에 의해서 그 適用範圍나 理論의 體系性에 있어서 급진적 발전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Kelley 一派들의 歸因理論에 기초한 研究의 特徵 및 方向을 Heider 나 Jones and Davis 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Heider 및 Jones and Davis 는 주로 어떤 條件 또는 要因이 어떤 歸因(內的 또는 外的, 動機 또는 能力, 責任 또는 無責任 등)을 낳게 하는가에 主 關心을 두었다. 예컨대, 他人의 意思에 同調的(Compliant)인 行爲의 歸因에 있어서 行爲者의 權力(power)有無가 內-外 歸因(internal vs. external attribution)에 어떤 影響을 미치나?(Thibaut and Riecken, 1955), 또는 役割期待나 社會的 規範과 一致하는 行動과 一致하지 않는 行動은 內-外 歸因에서 어떠한 차이를 낳게 하나?(Jones and Davis, 1965) 등과 같은 類의 研究質問이 中心을 이루었다.

勿論 Kelley 一派의 研究에서는 歸因에 영향을 미치는 條件 및 要因의 擴張 및 細分化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歸因過程 그 자체를 밀받침하는 基礎的 原理, 다른 말로 표현하면 歸因過程의 原因(epistemology of attribution process)을 밝히려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예를 들면, 行動의 效果와 후보로 등장된 原因이 時間上 同時的으로 변할 때(Covariation Principle) 또는 原因으로서 후보(Candidate)가 서로 인접해서 行動의 效果를 先行해서 일어날 때, 그 후보로서의 原因은 眞正한 原因으로 歸因될 수 있느냐와 같은 原理들을 밝히려는 接近은(예컨대, Kelley, 1972) 歸因過程의 基礎를 밝히려는 研究로서 看做될 수 있을 것 같다. 이와 관련된 것으로 Kelley 는 一般人이 原因分析過程에서 適用하고 있는 分析의 틀을 여러가지 주어진 情報事態와 관련지워 提示하고 있다.

歸因理論에서의 共通的인 前提는 一般人도 科學者와 같은 方法으로 一비록 粗雜하고 科學者처럼 體系의이지는 않지만 一 行動의 原因을 分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分析의 方法이나 分析의 모델에 대해 明白히 言及한 學者는 없었다. 그러나, Kelley는 一般人의 行動原因 分析의 모델이 實驗에서의 變量分析의 모델과 類似하다는 前提하에 一般人이 使用하는 變量分析의 모델을 提示하였다. Kelley 는 그의 變量分析 모델을 原因分析 틀(Causal Schemata)이라 지칭했으며, 이 Schemata 는 行動의 原因分析에서 마치 算術이나 數學에서 公式과 같은 役割을 하는 機能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좀 더 자세한 內容은 Kelley 의 Causal Schemata and the Attribution Process, 1972 를 참조할 것). Kelley 의 原因分析의 틀은 어떤 의미에서 George Kelley (1955, 1963)의 私的 構成 概念(Personal construct) 또는 Stotland and Canon(1972)의 事象間 相關認知(Schema)와 概念的 水準에서 약간 相異하다. 즉, 後者는 知覺이나 認知內容(cognitive content)에 力點을 두고 있는 반면 前者는 認知過程에 作用하는 原理 또는 公式에 더 가까운 概念이다.

둘째, Heider 및 Jones and Davis 등의 初期의 歸因理論家들은 歸因理論 자체에만 관심을 두고 있으나, Kelley 를 起點으로 한 後期の 歸因理論家들은 既存의 社會心理學의 假說, 理論 또는 社會心理學에서 意味있는 社會的 現象으로 다루어진 領域(예컨대, 印象形成에서의 初頭效果 對 後尾效果 등을 歸因理論의 立場에서 再解析하거나 또는 새로운 社會心理學 現象을 說明하는 데에 歸因理論을 適用하려는 試圖를 하고 있다. 예컨대, Jones 와 Goethals (1972) 등은 初頭 및 末尾效果 現象을, Kanous 와 Hanson Jr.(1972) 등은 印象形成에서의 負的偏頗(negativity bias)를 歸因理論에 依해 說明하려고 試圖했다. 또한, Nisbett 와 Valins(1972) 등은 態度나 感情認知에 있어서의 外的 現象(行動的 또는 事態的)의 主觀的 認知(Self perception)을 強



調하는 Schachter 와 Singer (1962) 및 Bem (1967)의 理論을 歸因理論의 立場에서 再解析하고 있으며, Weiner (1974)는 成就動機理論 및 動機理論一般을 歸因理論의 立場에서 再構成하고 있다. 그리고 Kanous (1972)는 言語的 記述이나 形象에 대한 言語的 標札(labeling)이 歸因에 미치는 影響을 例示하여 分析하였으며, Valins 와 Nisbett (1972)는 情緒的 障礙의 治療에 歸因的 接近의 可能性을 示唆하고 있다.

이 밖에도 Kelley 中心의 歸因理論에서는 第3者의 立場에서 他人의 行爲를 觀察하고 行動의 原因을 解析하는 第3者의 歸因過程 뿐만 아니라 他人과의 相互作用에 直接的으로 介入할 狀態에서의 相對人의 行動歸因에도 關心을 두고 있다는 점, 他人의 行動歸因 뿐만 아니라 自身の 行動歸因을 關心에 두고 있음과 동시에 이 兩者間의 歸因過程上의 類似性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歸因理論을 對人知覺뿐 아니라(Heider 나 Jones 및 Davis에서는 주로 對人知覺에 局限해서 歸因理論을 說明하고 있음) 社會心理學의 諸般 領域에 歸因理論을 적용하려고 試圖하고 있다는 점 등을 Kelley 一派의 接近方法上의 特徵으로 들 수 있겠다.

#### 4) George Kelly의 私的 概念構成(Personal Construct)理論

Kelly는 私的 概念構成의 心理學(Psychology of Personal Construct)이라고 지칭되는 두권의 저서(1955, 1963)에서 他人에 대한 知覺者의 知覺에 대한 理論을 展開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人間은 動物과 달라 外界에 受動的으로 反應만 하는 것이 아니라 外界를 概念化 할 수 있는 能力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은 자기周圍의 世界에서 일어나는 事象 및 刺戟을 끊임없이 자기 나름대로 概念化하고, 解析하고, 既存의 認知體制와 관련지워 組織化하고, 또 이에 따라 行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理論에서는 絶對的인 外界의 本體나 實在은 意味가 없을 뿐만 아니라, 客觀的이고 絶對的인 眞理는 없다는 점을 前提로 하고 있다. 그 대신 중요한 것은 外界의 現象(phenomena)을 어떻게 知覺하고 概念化 하느냐에 있다. 똑같은 現象(또는 客觀的 事實)을 놓고도 이를 概念化하는 方法은 거의 無限히 존재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側面에서 現象을 概念化 하느냐는 문제는 다만 研究者나 知覺者의 嗜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絶對적으로 맞는 理論은 存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點에서 Kelly는 科學的 接近의 궁극적 目標은 不變의 眞리를 이끌어 내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繼續적으로 變化하는 知識體系를 造成해 나가는 過程으로 보고 있다.

一般人도 科學者와 마찬가지로 자기 나름대로 外界의 現象을 理解, 豫言, 統制하기 위해 外界에서 일어나는 事象을 觀察하고 主觀的 思考(Subjecti-

ve thinking)를 통해 知識의 틀(construct)을 構築해 나갈뿐 아니라, 一端 얻어진 假說水準의 知識 또는 理論을 經驗的으로 檢證해 나간다. 이러한 假說이 經驗의 支持를 받으면 더욱 確固한 知識으로 굳어지며 이와 같은 과정은 계속 되풀이 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論議된 Kelly의 接近方法의 중요한 骨子は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다. 外界의 客觀的 現象은 知覺되거나 解析되지 않고는 그 意味가 없다. 즉 一般人是 外界의 現象을 自己 나름대로 理解하고 解析하고 概念化 해나간다. 人間은 過去나 現在의 經驗을 통해 얻어진 概念化에 따라 未來를 豫言하고 統制해 나간다. 또한 概念化 過程에서 얻어진 知識이나 假說은 經驗的 檢證을 거친다. 이와 같은 全體의 過程은 專門의 科學者도 一般人和 마찬가지로 一般人也 科學者라고 指稱할 수 있다. 또한 假說設定이나 概念化 過程에서 主觀的 思考는 必須的이다. 따라서 科學에서도 主觀的 思考가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認定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위와 같은 前提에 立脚하여 心理學 層계는 性格理論은 바로 一般人的 主觀的 概念體系를 있는 그대로 떠내는( picture out ) 데에 焦點을 두어야 한다고 強調하고 있다. 이와 같은 點이 바로 Kelly의 心理學이 本稿에서 論議되는 常識的 心理學의 範疇에 속하게 되는 根據를 提供하게 된다. 즉, 常識人的 常識的 思考를 있는 그대로 묘사해 봄으로써 그 常識人的 心理狀態를 把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一般 常識人이 外界知覺 및 解析에 使用하는 概念體制( template )를 알아야지, 科學者가 一般人的 行動을 理解하기 위해 專門的 立場에서 考察해낸 概念體制는 중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除去해야 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Kelly의 心理學에서는 學習( learning ), 動機( motivation ), 欲求( need ), 動誘( drive ), 強化( reinforcement ), 無意識( unconsciousness ), 自我( ego ) 등과 같은 概念은 찾아 볼 수 없다( Kelly, 1955, pp x-xi 참조).

Kelly에 있어서 概念化( construct)에 대해 좀더 仔細하게 考察해 보기로 한다. 科學者는 自身에게 關心事인 事象을 記述하고 解析하기 위해 概念을 使用한다. 마찬가지로 一般人也 自己 周圍의 事象을 解析하고 記述하기 위해 概念을 使用한다. 여기서 概念( construct)이란 世上을 解析하는 方法( a way of constructing, or interpreting, the world)을 뜻한다. 즉, 外界의 事象을 分類하고 行動의 方向을 나타내는 데에 使用하는 것이 바로 概念이다. 사람은 經驗을 통해 概念을 形成하고, 또 이와 같은 概念을 통해 未來를 豫言한다. 概念形成의 과정은 事象間의 差異點( contrasts )과 類似點( Similarities )을 知覺하는 것인 바, 概念化가 없이는 이 世上은 바로 混沌이며 반면 概念化가 되어졌을 때는 이 世上은 秩序를 갖게 되고 規則性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모든 概念에는 兩極端(dichotomous)을 갖게 되는 바, 한 쪽은 類似性 軸이며 또 한 쪽은 相異性 軸이라고 하였다. 概念은 抽象化(abstraction)가 된 것이며, 包括性 및 그 適用範圍에서 여러 概念들 間에 差異가 있을 수 있다. Kelly는 이를 使宜性 範圍(range of convenience)라 칭하고 있다. 이는 곧 概念의 適用範圍를 말하는 것이다. 그 외에 어느 한 概念이 가장 適合하게 들어맞는 事象이 있다. 그는 이를 使宜의 焦點(foci of convenience)로 表現하고 있다. 그 밖에도 人間의 機能에 必須的인 概念을 中核概念(core construct), 中核概念을 변화시키지 않고도 쉽게 變化될 수 있는 概念을 末梢概念(peripheral construct)이라고 하였다. 한편, 概念들은 相互獨立의 이라기 보다는 서로 關係性을 維持하면서 全體로서의 體制를 維持한다. 이러한 體制가 位階的(hierarchical)形態를 이룰 때, 어떤 概念은 他 概念의 上位概念(superordinate)이 되고, 그 밑의 概念은 下位概念(subordinate)이 된다. 사람들은 概念의 數와 種類에서 뿐만 아니라 이들 概念의 構造化에서도 서로 다르다는 見解를 피력했다. 결과적으로 特定人의 性格을 把握한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이 가지고 있거나 使用하는 概念을 알아내는 것이다.

따라서, Kelly에 있어서 어떤 個人의 性格을 알아내려면, 그 個人의 性格을 直接的으로 測定하는 것이 아니라 그 個人이 다른 사람의 性格을 評할 때에 使用하는 概念을 알아봄으로써 間接的으로 測定될 수 있다는 것이다. Kelly는 이와 같은 概念構成을 測定하는 手段으로 役割概念目錄檢査(Role construct Repertory Test, 간단히 REP test라고 함)을 考案해서 臨床的 場面에서 中점적으로 活用했다. REP test는 어떤 個人에게 人間關係에서 중요한 位置를 갖는 사람들 間에 知覺된 概念을 추론해 내고, 더 나아가 性格 및 心理的 問題點을 診斷하는 檢査이다.

지금까지 Kelly의 私的 概念構成 理論의 前提, 內容 및 이에 기초한 性格測定方法 및 道具에 대해 論했다. 私的 概念構成 理論은 規範的 科學(normative science)보다는 現象學(phenomenology)의 입장에 서있으므로, Kelly에게 있어서는 모든 個人에게 共通의으로 適用될 수 있는 性格이나 行動의 法則을 發見해 내는 것은 關心밖의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한 緣由에서 인지는 몰라도 이 理論에 더해 蓄積된 人間行動에 對한 一般的 法則이나 假說, 또는 知識의 蓄積은 별로 없는 것 같다. REP test를 使用해 精神病의 診斷 및 治療에 使用한 事例들은 많다. 또한 Kelly의 理論은 現在 美國에서 強하게 대두되고 있는 性格研究에 있어서의 認知的 接近(Klein, Ban, and Wolitzky, 1967, p.508 참조)의 先驅者的 役割을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다음에 論議될 Stotland와 Canon(1972)의 스키마 이론(Schema Theory)은 어떤 의미에서, Kelly의 私的 概念構成 理論의 發展된 形態의 하나

로 보아도 좋을 것 같다. 그러나 Stotland와 Canon 자신들은 자신들의 理論이 Kelly 이론의 變形 또는 發展模型이거나 Kelly의 영향을 받았다고 公式的으로 表現한 글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밝혀두고 싶다.

##### 5) Stotland와 Canon의 스키마 이론(Schema Theory)

Stotland와 Canon의 스키마 이론은 여러가지 點에서 Kelly의 私的 構成概念理論과 共通點을 갖는다. 즉, 科學者의 知識接近方法과 一般人의 그것과는 類似하다고 가정할뿐 아니라, 一般人은 外界의 變化에 受動的으로 反應해 나간다고 보다는 認知過程을 통해 外界를 理解하고 概念化하고 그럼으로써 세상(World)을 創造해 나가고 있다는 假定, 이와 같은 豫言的 創造過程을 통해 豫言이 가능한 規則性を 발견함으로써 外界의 秩序를 파악하고 統制할 수 있게 하며 또 適應을 돕는다는 假定, 여기서 認知過程은 外的 刺戟과 反應과를 媒介하는 機能을 한다는 것, 또한 既存의 傳統的 專門心理學 分野에서 사용하는 複雜한 概念을 거의 모두 不必要한 것으로 看做하는 입장 등은 Kelly와 비슷하다.

더 나아가 스키마 이론에서의 스키마란 概念도 Kelly의 私的 概念構成과 거의 類似한 성질의 것으로 把握될 수 있을 것 같다. 常識的 用語로 表現하면 스키마란 우리가 世上 및 人間에 대해 갖고 있는 信念 및 知識의 要素를 일컫는다. 좀더 스키마 개념 자체에 밀착된 定義로는 事象間의 關係性에 있어서의 特定한 規則性에 관한 法則으로서 이 規則은 抽象化된 것이기 때문에 特定한 事象에 局限된다고 보다는 一般化될 수 있는 것이다. Stotland와 Canon의 글을 直接 引用하면 다음과 같다.

...b... Abstract and generalizable rules, called schemas, regarding certain regularities in the relationships among events." (Stotland and Canon, 1972, p.67)

Kelly도 私的 概念構成을 具體的 事象으로 부터 抽象化(abstraction)된 것으로 概念化하고 있다는 점에서 Stotland와 Canon의 Schema의 概念과 共通點을 갖는다. 이 둘의 概念은 모두 一般人이 가지고 있는 外界의 諸般 現象에 대한 主觀的 假說 및 理論으로 理解될 수 있다.

이와 같은 Schema 概念의 속성이 스키마 이론의 常識的 心理學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는 根據를 提供해 준다. 즉, 스키마 이론은 一般人이 가지고 있는 스키마를 파악함으로써 人間의 社會的 行動을 좀더 잘 理解할 수 있다는 前提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스키마 이론의 接近은 현재 社會心理學 연구의 對象이 되고 있는 分野의 感情, 思考, 行動 등을 一般人이 가지고 있는 常識의 水準의 스키마의 把握을 통해 — 즉, Schema 이론의 立場에서 — 再解析하고,

더 나아가 이를 새로운 領域에 擴大시키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도 좀더 기초적인 研究로서 認知過程 자체에 대한 關心, 理論 자체의 體制化 및 原理化에 대한 관심을 Schema 이론의 연구과제로 Stotland와 Canon은 提示하고 있다.

스키마 이론의 提案者들은 이 理論의 基礎를 知覺(perception), 注意集中(attention), 記憶(memory)에 관한 理論에서 構築하고, 스키마 이론의 構成에 필요한 構成概念 예컨대, 次元(dimension), 概念次元(conceptual dimension), 次元上 位置(position), 例外確率(probabilism), 上位 스키마(higher order schema), 下位 스키마(lower order schema), 活性 스키마(aroused schema), 一貫性 스키마(consistency schema) 등의 創造를 통해 Schema 이론의 概念的 틀을 形成하고 있다(이 개념에 대한 좀더 仔細한 理解를 위해서는 Stotland and Canon, 1972, pp.72-161 참조할 것).

또한 理論化 과정에서 Kelly의 私的 構成概念 理論과는 달리 기존의 제반 傳統的 專門心理學 分野의 理論, 發見 등과 적절하게 관련지음으로써 하나의 理論體制로서의 合理化(justification)을 깊이있고 폭넓게 하고 있다. Stotland와 Canon의 스키마 이론이 앞서 제시한 常識心理學 分野의 他 理論과 크게 다른 점은, 그들의 이론이 단지 理論의 提示에만 끝나지 않고, 자신들의 理論에 더해 지금까지 거의 規範化된 諸般 社會心理學的 理論을 스키마 이론의 立場에서 再解析(alternative explanation)하고 있다는 점이다.

Stotland와 Canon은 스키마란 概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人間을 포함한 自然現象에 對한 諸般 知識內容을 일컫는 것으로 매우 包括的이다. 예컨대, 산은 높다, 바다는 푸르다, 구름이 많으면 비가 온다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곧 스키마라는 것이다. 따라서 스키마는 아주 어렸을때 부터 계속적으로 쌓아온 제반 知識의 體系라 할 수 있다. Stotland와 Canon이 그들의 저술(1972)에서 스키마 概念의 導入을 위한 概括的 表現을 引用하면 다음과 같다.

From birth we depend on other to communicate to us accurate information about our environment, and we very rapidly begin to organize this information into a system of rules and beliefs, which in this will be termed schemas, about the nature of the world, about the appropriateness or inappropriateness of certain behaviors in a given situations, about the most effective way of attaining goals, and so forth(p.38).

좀더 밀착된 定義로는 事象間의 關係性에 있어서의 特定한 規則性에 關한 抽象化된 法則(rule)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스키마는 特定한 事件에 局限된 法則性을 넘어 一般化된 法則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스키마는 직접 자신들이 經驗을 통해서, 他人을 觀察함으로써, 또는 他人과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習得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스키

마는 意識水準에 머물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明白히 意識되지 않은(unconscious) 스키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意識되지 않은 스키마의 실례로 좋아하기(attraction) 分野에서 오랫동안 檢證되어온 “態度類似性—좋아하기” 假說을 들고 있다. 이 假說의 要旨은 우리는 보통 자기와 類似的인 態度를 가진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態度의 類似性 때문에 他人을 좋아하게 된 경우에도 우리는 보통 이 事實을 明白히 意識水準에서 認知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앞서 제시되었던 Stotland와 Canon이 자신들의 理論을 構成함에 있어 使用했던 Schema와 관련된 具體的 概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chema란 抽象化되고 一般화된 水準의 事象間 關係性에 관한 法則이다. 그런데 抽象化나 一般化는 概念次元(conceptual dimension)없이是不可能的하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事象間 關係性은 곧 概念次元上에서의 關係性을 뜻하며, 그러한 緣由로 概念次元의 形成없이는 Schema는 發達할 수 없다. 따라서, Stotland와 Canon은 概念次元(conceptual dimension)을 스키마 이론에서 主要한 基本的 要素概念으로 使用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概念次元은 事象間の 類似性(Similarities)을 知覺하거나 認識할 때에 또는 事象間の 關係性을 파악할 때에 여러 事象間の 패턴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主觀的 構成概念 理論에서의 입장 즉, 概念은 事象間の 類似點과 差異點의 知覺을 통해 形成된다는 견해와 一致한다.

또한 概念次元과 함께 Schema 이론에서의 基礎概念을 이루는 用語에 位置(position)라는 概念이 있다. 예컨대, “크기”(swell)란 개념차원상에서 “크다” 또는 “작다”와 같은 知覺은 어떤 事象의 “크기” 개념차원상에서 位置를 말한다. 즉, 位置란 어떤 物體(object)가 概念次元上에서 차지하는 點을 말한다. Schema를 다시 概念次元과 位置라는 專門的 術語를 사용하여 定義하면 “概念次元상에서의 位置들 間的 關係性”으로 定義된다. 예컨대,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진다”라는 스키마에서 ‘가을’은 ‘계절’이라는 概念次元상에서의 特定한 位置이며, ‘落葉’은 ‘나뭇잎(또는 잎의 종류)’라는 概念次元상에서의 한 位置인 바, 하나의 스키마는 位置들 間的 關係性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使用度”라는 概念次元과 관련된 位置의 例를 들면 ‘食用’, ‘建築用’, ‘놀이용’, ‘學習用’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位置는 類目的 形態로 表現되기도 한다.

a schema consists of positions on conceptualized dimensions, and the relationships among them(p.99)..... By experencing repeated combinations of correlated positions on the conceptual dimensions, he develops schemas, or associations between various positions on a number of conceptual dimensions (p.104).

또한, 私的 構成概念 理論에서 構成概念이 서로 관련지어 組織化될 때에 成立하는 階層的 位階關係에서 上位 構成概念과 下位 構成概念이란 用語를 使用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Schema 理論에서도 똑같은 脈絡에서 上位 Schema 와 下位 Schema 란 개념을 사용하고, 이들간의 關係를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즉, 상위 스키마는 하위 스키마보다 더 抽象的이며 더 一般化된 스키마로 보통 하나의 스키마의 밑에는 둘 이상의 하위 스키마가 포함된다. 다시 말해 상위 스키마는 그 밑에 포함된 하위 스키마들에서 같은 共通의 要素 또는 關係 要素에 기초하여 이끌어낸 要約(abstraction)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佛敎에서는 사랑을 강조한다’, “儒敎에서는 사랑을 강조한다”, “基督敎에서는 사랑을 강조한다”라는 세개의 命題가 綜合되어 “宗教는 사랑을 강조한다”라는 命題가 導出되었을 때, 앞의 세개의 命題는 下位 Schema 가 되고 뒤의 導出된 하나의 命題는 上位 Schema 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上位 Schema 는 下位 Schema 보다 더욱 一般化 되었고 抽象化 되었기 때문에 일단 형성된 뒤에는 변하기가 어렵다. 즉, 일단 형성된 上位 Schema 가 具體的 經驗內容이나 새로 形成된 下位 Schema 와 不一致할 경우에는 上位 Schema 보다 下位 Schema 또는 具體的 經驗內容이 부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上位 Schema 가 下位 Schema 에서 綜合導出되었을 경우에는 下位命題는 上位命題보다 잊혀지기 쉽다.

여러 스키마들 간에 一致하느냐 또는 不一致하느냐를 比較하는 데에 介入되는 스키마를 “一貫性 스키마(consistency schema)”라고 하며, 이와 같은 比較는 바로 ‘一貫性 스키마’가 作用하기 때문이다. 일관성 스키마는 상호 비교되는 스키마들의 內容과는 無關하게 스키마간의 比較에서 모두 作用함으로 ‘일관성 원리(consistency principle)’이라고도 불려진다. 즉, 一貫性 原理는 스키마간에 一致性을 비교하도록 위에서 命令한다는 점에서 上位 Schema 의 一種으로, 이는 다시 習得된 스키마간의 비교뿐 아니라 새로운 스키마의 습득 (Schema acquisition)과정에도 중요하게 介入된다. 예컨대, 同一한 事態에서의 수많은 經驗을 통해 하나의 스키마가 형성되는 경우, 이들 經驗들 간의 類似性 比較를 命令하는 것이 또 ‘一貫性 原理 스키마는 스키마의 習得뿐 아니라 스키마 상호간의 一致性 比較에 作用한다는 점에서 두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스키마 이론의 구성하는 基礎概念은 더 많으나 여기서는 다만 몇개의 例示의 紹介로 끝내기로 한다(더욱 仔細한 것은 Stotland and Canon, 1972 를 참조할 것).

지금까지 앞에서 部分的으로 論議된 바와 같이 스키마 이론이 그 基本的 接近方法, 假定, 스키마의 여러 概念 등에서 私的 構成概念과 또 그 理論과 상당한 共通點이 있으나, 理論의 體制化 및 使用되어지는 基本理念의 說明에 있

어 私의 概念構成 理論보다 더 具體的이라는 印象을 준다. 뿐만 아니라 스키마 이론은 私의 構成概念 理論이 주로 關心을 두고 있는 性格分野뿐 아니라 社會的 現象 全般에 이 理論을 적용시켜 설명해 보려는 의도가 스키마 이론에 더 많이 포함된 것으로 思料된다.

또한 Stotland와 Canon은 이론의 提示에만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理論에 더해 지금까지 理論과 實驗을 통해 축적되어온 諸般 社會心理學的 理論 및 假說을 스키마 이론의 立場에서 研究問題를 再整理, 再解析하고 있다. 예컨대, 認知不均衡 理論에 기초한 豫言이 스키마 이론에서도 가능하다는 演繹的, 經驗的 說明을 비롯하여, 對人知覺(person perception), 態度變化, 同調 및 集團能力, 自尊心 등의 領域에서의 研究問題에 대한 解答에 스키마 이론을 적용한 再解析(alternative explanation)을 說得力있게 그의 力著 "Social Psychology: a cognitive approach, 1972"에서 提示하고 있다.

지금까지 위에서 常識心理學的 接近에 直接 또 間接으로 關聯되거나 常識心理學的의 發達에 寄與하고 있는 理論들을 相互關聯지워 簡略하게 考察해 보았다. 理論들을 綜合의 便宜上 다시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 〈常識心理學 部類의 理論考察의 要約〉

#### 1) Abelson과 Rosenberg의 心理的 記號論理 理論

態度形成過程에서 作用하는 認知的 論理는 自然科學에서 使用하는 客觀的 論理와 差異가 있다는 前提下에서 出發했다. 따라서 態度類關的 認知要素 相互間에 一貫性을 維持 내지 成就하는 過程에서 作用하는 心理的 論理法則을 發見하는데 關心이 있었다. 그러나 Abelson과 Rosenberg에 의해 提案된 心理的 記號論理 理論에 대한 認知均衡理論 또는 不均衡理論의 追從者들에 의해 계속적으로 研究되어지지 못해 繼續적으로 發展되지 못했다.

#### 2) 印象形成에 있어서의 潛在的 性格理論

一般人들이 印象形成에 있어 相對에 대한 매우 制限된 資料를 가지고도 豊富하고 體系있는 印象形成이 可能的 것은 知覺者의 主觀的 經驗을 통해 쌓아온 性格理論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前提했다. 따라서 研究의 關心은 一般人이 가지고 있는 性格理論의 構造나 패턴을 밝히며 그 有用性을 뒷 바침하는데 研究의 關心을 두었다. 1960年代에 印象形成이나 社會的 知覺(Social perception) 研究의 概念化에서 이 理論은 하나의 主導的 役割을 해왔다. 그러나 1970年代에서는 歸因理論의 강력한 出現으로 인해 이 印象形成理論에 대한



關心이 주춤해진 감을 준다.

### 3) 歸因理論

他人의 行動을 보고, 그 行動을 그 個人이 願해서 했는가, 아니면 外部의 與件에 依해 誘發되었는가를 判斷해 나가는 對人知覺者는 밖으로 나타난 行動이나 行動結果를 觀察했을때 그 行動의 原因을 알아내려는 動機를 日常人들은 가지고 있다는 前提下에, 이와같은 原因을 分析하는데 使用하는 方法 및 이에 作用하는 思考의 틀을 發見하는데 歸因理論은 主 關心을 두고 있다.

Heider를 始祖로한 歸因理論의 接近은 Jones와 Davis를 거쳐 最近에는 Kelley一派에 依해 理論自體나 關心領域에 있어서 繼續的 發展을 해 왔다. Heider를 비롯한 初期 研究家들의 關心은 行動의 原因이 個人에 있느냐, 아니면 外的 與件에 있느냐 즉 內-外歸因이었으며, 그 후 Jones와 Davis期에서는 內-外歸因過程에서 使用되는 知覺者의 認知的 準據內容에 대한 細分化和 體系化에서의 發展이 있었으며, 關心領域에 있어서도 性格歸因으로 좁혀져 實證的 研究가 좀 더 용이하게 되었다.

Heider, Jones, Davis의 關心領域이 주로 對人知覺(Person perception)에 局限된데 反해 Kelley를 비롯한 後期 歸因家들은 歸因理論의 適用範圍를 넓혀 成就動機, 言語心理學, 態度, 集團力學 등에 歸因理論을 適用시키고 있다. 또한 단순한 着想水準에 머물렀던 歸因理論 自體를 理論으로서 發展시키기 위해 理論自體의 體系化가 Kelley一派에 의해 이루어져서 歸因過程에 關與되는 歸因原理의 發見 및 歸因에 作用하는 概念的 틀의 여러가지 類型에 대한 開發이 이루어 졌다.

### 4) George Kelly의 私的 構成 概念 心理學

人間은 知覺이나 認知過程을 통해 이루어진 外界에 대한 常識水準의 概念體系를 理解함으로써 性格뿐 아니라 그 個人을 理解하는 것이라는 前提下에 理論을 展開시켰다. 이 理論의 主要關心은 主觀的 構成概念을 意味있게 把握하는 手段 및 方法을 考察하고, 더 나아가 把握된 構成概念을 性格測定이나 臨床場面에 關聯지워 의미있게 解釋하는 方法을 發見하는데 있었다. 이 理解 및 이 理論에 더한 測定道具는 주로 性格測定이나 臨床診斷에 使用되어져 오고 있으나, Kelly의 理論自體에 있어서는 별다른 發展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5) Stotland와 Canon의 스키마理論

特定한 事態에서 特定한 個人의 行動은 그 特定한 個人이 그러한 特定事態

와 關聯해서 習得한 認知構造에 의해 決定된다고 前提하였다. 이 理論에서, 認知的 構造는 事象間의 規則的 關係性에 대한 知識 또는 信念을 말하며, 이를 “스키마”라 稱했다. 즉, 스키머란 一般人이 過去의 經驗을 통해 習得한 檢證된 假說 또는 信念이다. Stotland와 Canon은 단순히 스키머란 概念을 가지고 人間의 行動을 說明하려 했다. 따라서 그들은 스키머란 概念의 定義에서부터 始作하여 스키머의 力動的 構造, 스키머가 習得되는 過程, 스키머의 機能 등을 既存의 心理學的 理論, 假說, 原理, 發見들과 폭 넓게 關聯지워 說明함으로써 스키머 概念의 內包的 特性을 詳細히 그리고 體系的으로 記述하고 있다.

Kelly의 構成概念理論의 關心方向은 構成概念에 있어서의 個人間的 差를 構成概念 內容面에서 把握하는데 있다. 그러나 Stotland와 Canon의 스키머理論에서는 비록 스키머內容에 있어서 個人差를 認定하지만, 關心의 主要方向은 사람마다 서로 다른 스키머의 內容을 把握하는 일 보다 一般人이 共通的으로 所有하고 있는 스키머를 把握하는데 기울어지고 있다. 따라서 스키머 理論에서는 社會的으로 意味있고 또 同時에 一般인들이 共通的으로 所有하고 있는 Schema를 把握하여, 이를 社會的 行動의 一般的 法則化 또는 原理化하는데 더 큰 比重을 두고 있는것 같은 印象을 준다. 例컨대, Stotland와 Canon은 既存의 社會心理學的 分野에서 축적되어온 社會的 行動의 原理 또는 假說을 스키머理論의 立場에서 再解釋하고 實證해 주고 있다. 즉 Kelly의 私的 構成概念理論은 주로 性格分野에만 適用되고 있으나, Stotland와 Canon의 스키머理論은 社會的 行動 全般에 適用하고 있다.

위의 要約에서 各 理論들의 特性을 찾아 보면 먼저 George Kelly의 私的 概念構成理論이나 Stotland와 Canon의 스키머理論은 모두 個人이 外的 世界를 어떻게 構成하고 있느냐 즉 主觀的인 構成世界를 對象으로 하고 있다는 點에서 內容領域이 매우 광범위 하다. 反面에 歸因理論이나 心理的 記號論理論, 潛在的 性格理論 등은 前者의 理論들과는 달리 歸因이나 性格 또는 態度和 같은 特定領域에 局限하여 一般人이 使用하는 理論性, 行動原因分析모델, 또는 性格의 假說 등을 制限的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前者를 廣域的 常識心理學이라 한다면 後者를 特定領域 常識心理學이라 호칭해 볼 수 있다.

이들 理論을 特性面에서 分類해 보는 또 하나의 方式은 個人이 가지고 있는 私的 構成世界 또는 스키머 自體가 무엇이며, 이들을 있는 그대로 複製하는데 關心을 두고 있느냐, 아니면 私的 構成世界 또는 스키머를 習得하는데 關與되는 心理的 論理, 法則性, 또는 過程이 어떠 하느냐에 關心을 두는 立場이다. 전자에 關心의 焦點을 맞추는 理論은 私的 概念構成理論, 스키머理論

및 潛在的 性格理論이라 한다면, 후자의 접근에 기울어진 理論은 心理的 記號論理論과 歸因理論을 들 수 있겠다. 전자의 접근을 日常人的 常識內容 心理學이라 한다면, 후자의 접근을 日常人的 常識習得過程 心理學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한가지 지금까지의 常識心理學의 發達過程에서 注目할 만한 現象은 常識內容心理學은 一般的으로 漸次的인 發展過程을 나타낸 반면, 常識習得過程心理學은 그 理論의 正當性이나 必要性을 主張하는데는 說得的이었으나 內容面에서의 進展은 계속적인 發展을 해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特性의 考察을 基礎로 해서 아래에서는 心理學의 한 領域으로서의 常識心理學의 體系를 定理해 보고, 지금까지 소홀히 되어온 새로운 接近을 探索해 보기로 한다.

## 5. 常識心理學의 綜合的 體系化 및 새로운 接近探索

常識心理學은 科學心理學 또는 傳統的 學問心理學과 對稱되는 概念으로 생겨난 用語이다. 따라서 傳統學問의 心理學의 特性과 더불어 傳統學問의 心理學이 가지고 있는 脆弱點 또는 問題點을 明確히 할 때에 常識心理學의 性格과 特性이 表出될 수 있다. 傳統學問의 心理學은 사람을 動物과 마찬가지로 外的 刺戟에 대한 受動的 反應體로 보려는 傾向이 많으며, 따라서 自然科學의 實驗的 方法論을 人間의 行動研究에 그대로 適用하려는 傾向性이 강했다. 이러한 實驗的 接近에서는 一般人이 刺戟 또는 環境에 대해 어떻게 知覺하고, 解釋하며, 過去에 축적된 經驗에 따라 認知的 世界가 어떻게 形成・變化되며, 個人이 처한 社會文化的 內容이 個人 또는 集團의 知, 情, 意的 世界에 어떻게 滲透되며, 過去 또는 現在의 外的 行動과 環境의 反應이 個人的 認知 및 行動에 어떻게 逆投入 되는가의 問題에는 큰 關心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人間에 대한 受動反應體的, 現在時點的, 客觀的 接近은 살아서 생각하는 사람을 研究하는데 부족한 일면을 갖게 된다.

사람은 動物과 달리 단순한 知覺反應體가 아니다. 사람은 物理的 世界를 概念化, 言語化하며 複雜한 思惟過程을 通해 世界를 意味있는 體制로 再構成하며, 經驗을 蓄積하고, 스스로 情報를 產出하며, 外界에 대해 能動的으로 對處해 나가는 構成的 動物이다. 따라서 이러한 人間의 機能을 無視한 實驗的 接近은 人間의 刺戟－反應의 側面을 보는데는 效果的 일 수 있으나 刺戟에 대한 認知的 媒介過程 및 刺戟 再構成過程, 過去 經驗에 바탕을 둔 知覺 및 認知世界 變化過程을 理解하고, 이러한 過程에 基礎하여 나타나는 行動을 理解하는데는 傳統的 實驗心理學만으로는 不足한 점이 많다. 常識心理學은 이와같은 傳統心理學의 弱點을 補完하는데 關心을 둔다. 즉 常識心理學에서는 人間

을 外界 및 刺激에 대한 能動的 構成者 및 再構成者로 보며 따라서 人間의 內面的 世界에 關心을 두고 研究對象者 自身の 主觀的 經驗과 構成世界 또는 構成刺激을 現象的으로 把握하고 理解하는 接近方式을 取한다. Heider가 常識心理學을 平均人의 現象學(phenomenology of the average person)이라고 부르는 연유도 바로 여기에 근거한다.

傳統的 學問心理學의 두번째 特性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實驗室內에서의 사람을 研究한다. 實驗室狀況에서 사람을 研究하는데는 理由가 있다. 즉 研究者가 關心을 둔 獨立變因을 體系的으로 變化시킬 수 있으며, 同時に 從屬變因을 客觀的으로 測定할 수 있다는 長點을 가진다. 이 過程에서 實驗의 汚染을 막기 위해 研究者가 關心을 갖지않은 加外變數에 대해서는 철저한 統制를 가한다. 이는 곧 單純化시킨 環境속에서의 行動研究를 뜻한다. 그러나 실제 人間이 살아가는 環境은 實驗室狀況처럼 單純한 環境이 아니며, 實驗室에서 統制시킨 加外變數가 個人에게 無作爲的으로 影響을 주는 複雜多端한 環境이다. 常識心理學은 바로 이러한 實驗心理學의 弱點을 補完하려는 意圖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實驗室內에서의 사람”이 아닌 “市場속에서 行動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研究하는데 關心이 있다. 이러한 理由에서 常識心理學을 “길거리인의 心理學(psychology of the man on the street)”이라 부르기도 한다. 즉 常識心理學에서는 實驗室이 아닌 日常生活 事態에서 行動하는 길거리의 사람들을 對象으로 이들이 어떤 行動을 왜, 어떤 過程을 통해 또는 무슨 이유로 그렇게 行動하게 되는가를 길거리인의 知覺과 思考를 그대로 가져와 이해하려는 데에 關心을 둔다.

세째로, 傳統學問的 心理學은 理論을 重要視한다. 그런데 이 理論은 自然科學에서의 法則과 같이 研究의 對象이 되는 客體가 自覺하지 못하는 專門化되고 高級화된 理論이다. 즉 心理學者가 만들어낸 理論이다. 傳統科學的 心理學에서는 바로 心理學者들의 智慧와 實驗을 바탕으로 해서 構成한 理論을 가지고 一般人的 行動을 덮어 씌워서 說明하는 立場을 取한다.

Freud의 精神分析學的 理論이 그렇고, Skinner의 行動主義理論이 그렇다. 이러한 一般人이 아닌 心理學者들의 理論은 人間의 行動을 普遍的 理論體系로 理解하고 說明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길거리인이건 平均인이건 一般人들의 認識體系와 理論이 서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 수록 이러한 心理學的 理論은 一般人的 心理學的 理解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더 나아가 心理學이 人間不在의 心理學(Psychology without person)으로 轉落하기 쉽다. 自然科學과 人間科學을 比較해 볼 때, 自然科學에서는 研究의 對象이 사람의 認知와 思考를 人間行動의 研究에서 無視할 수 없다는 特徵을 지닌다. 그 理由로는 첫째, 사람은 無生物이나 動物과 달라 自身이 構成한 思

考와 認知에 따라 行動함으로 研究對象者인 人間의 心的 世界를 理解한다는 것은 필수적이다. 둘째로는, 自然科學의 目的은 研究對象이 되는 無生物이나 動物에 利益을 가져다 주는 일 보다 研究者인 人間에게 도움을 주는데 目的을 둔다. 따라서 研究客體가 理論을 理解할 수도 없으며 理解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研究客體 및 主體가 모두 人間인 心理學과 같은 人間科學의 根本目的은 研究의 主體 및 客體인 人間에게 도움을 주는데 있으며, 그것도 研究客體의 福祉 및 利益을 우선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心理學的 知識은 다른 條件이 同一하다면 研究客體가 되는 一般人이 理解할 수 있는 것일수록 좋다고 볼 수 있다. 常識心理學은 이러한 덮어씌우기 心理學이나 心理學者 爲主의 心理學 또는 人間不在 心理學의 短點을 補完하려는 意圖에서 출발한다. 一般人的 생각을 있는 그대로 떼내서 體系化하며 一般人이 使用하는 用語나 思考에 되도록 가깝게 接近하는 理論 및 知識을 體系化하는 立場 즉, 人間內의 心理學 (Psychology within person)을 구축 하는데 관심을 둔다. 常識心理學을 普通 사람의 心理學 (Naive Psychology)이라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위에서 論議된 傳統學問的 心理學과 常識心理學의 差異點은 바로 常識心理學을 定義하는데 暗示的 示唆點을 갖는다. 즉 常識心理學은 普通 사람들이 實驗室이 아닌 日常生活場面에서 經驗을 통해 習得하게 되는 사람, 集團, 社會에 대한 潛在的이거나 顯在的인 知覺, 認知 및 思考過程과 그 內容 및 結果들을 日常人的 用語를 使用해 日常人的 心理를 그대로 複製하고 이를 기초로 心理學的 知識을 體系化하고 더 나아가 理論化하는데 關心을 둔 日常人 中心의 現象學的 心理學이라고 定義해 볼 수 있겠다.

常識心理學의 必要性을 正當化 시키는 根據는 앞서의 傳統的 科學心理學과의 比較에서 나타난 傳統的 科學心理學의 脆弱點을 補完한다는 點과 더불어 根本적이고도 重要的 또 하나의 理由는 사람은 動物과는 현저히 구별되는 積極적이고도 能動的인 認知活動을 展開하고, 이러한 認知活動을 통해 얻어진 知識과 思考에 따라 意圖的인 行動을 展開한다는 點이다. 물론 이러한 一般人的 知識 및 思考는 客觀的인 現實과 一致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論理性和 妥當性を 缺할 수도 있다. 그러나 重要的 것은 그러한 知識이 맞건 틀리건 一般人的 行動에 어떤 形態로든 影響을 미치며, 또한 社會의 大多數 構成員이 들린 知識을 共通的으로 所有할 때 그러한 知識은 機能的 適應價値를 가질 수 있다는 點이다. 人間이 살아가는 世界는 客觀的 現實世界를 넘어서는 것이 보통이어서 意味 및 象徵的 世界, 主觀的 知識의 世界가 人間의 行動에 影響을 미치는 폭과 깊이는 매우 넓고 깊다고 하겠다. 어떤 면에서 對人 間의 相互作用 및 自身과 他人의 行動에 대한 知覺 및 意味化의 世界에서는 客觀的 現實의

側面 보다 主觀的 解釋의 側面이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傳統的 學問心理學에서는 一般人的 主觀的 構成世界는 無視한 채 物理的 刺激特性에 대한 外形的 行動反應만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왔으며 이러한 脆弱點을 補完한다는데서 常識心理學의 必要性은 正當化된다. 한마디로 생각하는 人間을 研究한다면서 생각을 빼버리고 사람을 研究하는데 終來의 傳統學問的 心理學의 問題點이 있다. 普通사람 自身들은 主觀的 世界와 客觀的 世界를 구분해서 認識한다기 보다는 主觀的 世界를 客觀的 世界로 受容하며 代用하는 것이 보통이며, 또한 動物과 달리 客觀化된 主觀世界 또는 主觀化된 客觀世界를 言語나 意味體系로 表現할 수 있다는 점이다. 思考하고, 思考의 內容을 表現할 줄 아는 人間의 能力을 傳統的 學問心理學에서 活用하지 않았다는 점은 수긍하기 어렵다. 물론 常識心理學이 必要하다고 해서 傳統的 刺激-反應式的 實驗心理學을 否定하려는 것은 아니다. 人間의 行動이 客觀的 環境과 主觀的 世界에 영향을 받게됨을 감안한다면 傳統的 學問心理學은 客觀的 世界에, 常識心理學은 主觀的 世界에 關心을 둔 心理學의 接近이라 볼 수 있다.

앞서의 常識心理學 考察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常識心理學은 주로 Heider를 기점으로 한 歸因分野에서 散發的으로 常識心理學이 무엇이며, 왜 必要한가를 부분적으로 論議해 왔다. 그러나 本稿에서 시도한 常識心理學의 定義에 따르면 心理學의 關心對象이 될 수 있는 또는 領域 및 內容이 될 수 있는 一般人的 知識 및 思考過程은 모두 常識心理學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本稿의 考察에서 歸因理論은 물론 心理的 記號理論, 潛在的 性格理論, 私的 概念構成理論, 스키머理論 등을 모두 常識心理學의 範疇에 넣은 理由도 바로 여기에 있다. 즉 本稿의 常識心理學에 대한 定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一般人的 心理的 現象學에 關係된 것이면 모두 常識心理學의 體系속에서 統合될 수 있다고 생각 된다. 其實 傳統的 學問心理學의 한 分野인 社會心理學的 知識의 相當部分은 心理學을 모르는 一般인도 한번 들으면 쉽게 理解하고 곧 바로 首肯하게 되는 內容이 많다. 例컨대 “가까이 살면 親해진다”라는 近接-좋아하기 假說이라든가, “態度가 類似하면 서로 좋아하게 된다”는 態度類似性 假說理論 등은 一般人的 常識과 쉽게 合致되기 때문에 이러한 理論을 듣는 순간 一般인은 곧 바로 首肯하게 되며 이런 점에서 既存의 社會心理學的 知識의 相當部分은 常識心理學의 內容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常識心理學의 必要性을 補強시키는 또 하나의 이유는 常識心理學을 통해 心理學이 人접학문 분야와의 連繫性을 가질 수 있다는 점과 現實的으로 心理學에 社會的 要求를 보다 폭 넓게 充足시킨다는 점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는 보통 文化와 社會가 個人 및 集團의 行動에 영향을 미친다는 命題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傳統學問的 心理學에서 文化와 心理學이 具體的으로

어떠한 關係를 갖는가에 대한 知識은 매우 制限되어 있으며 고작해야 Freud의 理論을 빌리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물론 최근에 대두된 文化比較 心理學分野에서 文化와 人間心理와의 關係를 漸次的으로 重要하게 다루어 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얻어진 知識은 매우 미미한 형편이다. 또한 社會心理學에서도 社會의 重要性에 대해 認識을 하고는 있으나 具體的으로 社會文化에 따라 個人 및 集團의 行動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대한 知識은 별로 축적된 것이 없다. 기껏해야 社會心理學分野에서는 美國人을 對象으로 한 美國 社會心理學 知識이, 그것도 美國의 老人이나 少年이 아닌 美國 大學生을 대상으로 한 社會心理學的 知識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社會心理學的 知識內容은 거의가 社會文化的 關心을 理論이나 研究의 水準에 까지 끌어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常識心理學을 社會心理學的 한 分野로 導入할 때 文化와 社會의 特性을 心理學 水準으로 끌어내리는데 실질적 편리성을 가질 수 있다.

既存의 傳統心理學에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研究의 對象이 되는 一般人的 常識的 心理學을 소홀히 한 상태에서 研究者가 考案한 刺戟과 反應의 關係를 實驗室內에서 사람의 行動誘發過程이나 心理過程을 밝혀 내는데 그 關心을 두어 왔다. 따라서 文化의 內容이나 文化를 통해 얻어지는 一般人的 意志, 態度, 價值觀 등의 問題 즉 文化를 통해 一般인들이 構成한 主觀的 世界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접근은 결과적으로 회피되어져 왔다. 그러나 文化나 社會의 貫習, 傳統, 民俗, 宗教, 家族體制, 階層, 身分, 職業, 年齡, 性別 등과 같은 諸般 社會文化 人口學的 特性은 그 自體로서의 重要性뿐 만 아니라 그러한 構造的 要因이 個人的 知覺體制, 認識體系 등을 포함한 常識心理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 일이 전자 보다 앞서야 하고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설명적으로 例示하면 勞働者 階層이 勞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자기신분을 어떻게 받아 들이며, 自身들의 未來를 어떻게 展望하며, 使用者의 勞働者에 대한 態度를 어떤 것으로 知覺하느냐를 알아 보는 일은 勞働者 階層의 行動을 理解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러한 內容은 常識心理學的 接近의 對象이 될 수 있다. 그러나 普遍的 心理過程을 중시하는 傳統的 學問心理學에서는 勞働者の 態度形成過程이, 行動意圖決定過程이 어떠한 것인가를 밝히는데 關心을 둔다. 其實 勞働者和 勞働者 아닌 사람들의 態度形成過程이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 할지라도 勞働者の 行動理解에는 전자의 접근에서 처럼 實質的 實用性を 높게 가질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心理過程 心理學과 心理內容 心理學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心理學은 傳統的으로 行動이, 態度가, 知覺이 어떤 原理에 의해 나타나고 形成되는가에 대해서는 關心을 가졌지만 그러한 行動이 어떠한 意圖에서, 그러한 知覺 및 態度的 內容이 어떤 것인가를 즉 知覺, 態度, 思考의 內容(過程이 아닌)을 밝히는 側面을 소홀히 해

왔다. 그러나 人間의 行動을 理解하기 위해서는 人間行動決定의 普遍的 原理  
 뿐 만 아니라 그러한 原理가 作用해서 結果的으로 蓄積된 信念內容, 知識內容,  
 態度 및 價值觀內容, 知覺內容이 무엇인가를 아는 心理內容 心理學도 이에 못  
 지않게 중요하다. “사람은 생각한대로 行動한다”라는 命題의 타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면, 생각의 內容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行動을 心理學的으로  
 理解하는데 매우 重要하다. 어떤 면에서 상대의 생각내용을 물어 보지 않고 對  
 答할 수 있다면 心理學者는 豫言家와 같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생각내용을 알았을 때, 기대되는 행동을 상당한 정도로 豫言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傳統的 心理學에서는 생각과 내용을 물어 보지 않고,  
 外部的 刺激과 反應만을 研究해 왔다. 常識心理學은 바로 생각내용을 물어볼  
 수 있는 心理學이란 점에서 現實的인 心理學이며 생각내용이 社會文化에 따라,  
 集團階層에 따라 또는 地位・身分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假定을 받아 들일  
 때 常識心理學은 社會學, 文化學, 人類學, 民俗學 等の 人智學문 분야와 心理  
 學 間의 교량을 놓을 수 있는 媒介의 役割을 담당할 수 있다.

既存의 常識心理學의 主要領域인 歸因理論도 생각하는 내용을 다룬다는 점  
 에서는 미흡함이 많다. 歸因理論은 歸因의 內容을 重要視 않고 歸因의 過程이  
 나 歸因의 條件을 重點的으로 다루어 왔다. Kelley의 立方體 理論이나 歸因  
 에서의 削減原理(discounting principle) 등은 모두 歸因의 過程에 關係된  
 理論으로 歸因自體는 아니다. 이러한 歸因過程은 歸因이 어떤 틀과 原理에 의  
 해 이루어 지느냐의 原理的 側面을 밝히는데 有利하나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래서 結果的으로 어떤 歸因結果內容을 一般人이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具  
 體的 情報를 提供하지 못한다. 즉 A狀況일 때 內的 歸因을, B狀況일 때 外  
 的 歸因을 한다는 豫見情報 價値는 가지나 實際生活에서는 어떤 歸因을 해서  
 어떻게 行動할 것인가를 判斷하는 것이 더욱 實질한 關心事이다. 이점에서 歸  
 因理論은 心理過程 心理學이지 心理內容 心理學은 아니다. 뿐 만 아니라 歸因  
 過程 自體도 一般人은 스스로 意識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며 따라서 歸因理  
 論은 一般人을 對象으로 한 心理學者의 常識心理學이지 一般人 스스로의 心理  
 學 그 自體는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歸因理論이 一般人的 心理過程을 常識  
 的 用語를 使用해 一般人的 思考過程 自體를 그대로 본떠 내려는 立場에 있다는  
 점에서 常識心理學의 範疇에 속할 수 있겠다.

여기서 앞서 논의한바를 좀더 자세히 부연설명하면, 歸因理論을 비롯한 기  
 존의 常識心理學의 理論들은 特定한 刺激狀況 또는 條件下에서 특정한 知覺反  
 應, 認知反應 등을 나타낼 때, 이에 관여되는 心理的 原理 또는 模型을 밝히  
 는 즉, 心理過程을 밝히는 데에 主 關心을 두어 왔다. 이러한 心理過程에 대한  
 理論은 多樣的 狀況에서 普遍的으로 適用될 수 있다는 점에서 普遍化 및 一般



化의 價値를 지닌다. 좀 다른말로 하면 이러한 心理過程에 대한 理論은 特定한 條件이 주어진 狀況에서만 豫測이 可能함으로 特定人의 特定行動을 理解하고 豫測하기 위해서는 特定人에게 作用하는 外的 刺戟狀況이나 條件을 먼저 正確히 파악하는 일이 必要하다. 하지만 現實으로 一般人이 生活하는 日常環境의 刺戟狀況은 매우 複雜하여 特定 常識心理學의 理論에서 提示하는 것과 같은 單純한 자극상황이 아니며, 또한 다양한 刺戟속에서 어떤 刺戟에 反應하는 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데에 問題點이 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時間的次元에서의 경험에 따라 刺戟에 대한 意味 및 重要性이 個人內에서도 다를 수 있으며, 結果적으로 特定 常識心理學에서 設定한 特定の 心理過程도 時間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學業成績에 대한 歸因에서 知能과 努力이 중요한 決定變數로 作用한다고 보는 心理過程 모델이 어느 날 家庭環境이 중요하다는 記事를 피험자가 읽고난 후에는 가정환경을 學業成就의 중요한 決定要因으로 생각하게 되어, 結果적으로 學業成就의 歸因모델이 달라질 수 있다. 이와같은 종래의 常識心理學的 接近, 즉 心理過程에 대한 常識心理學的 短點을 한편 고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一般人도 心理學者라는 前提위에서 一般人的 心理學的 知識自體를 對象으로 삼는 一般人 中心의 心理學을 여기서 提議하고자 한다. 즉 一般人이 어떤 過程을 통해 어떠한 歸因을 하느냐는 問題에 關心을 둔다기 보다는 歸因過程을 통해 一般人이 所有한 歸因的 知識이 一般人的 行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데에 關心을 둔 接近이라 할 수 있다. 前者의 接近에서는 心理過程을 중시한다는 點에서 心理過程 常識心理學이라 한다면, 後者の 接近에서는 心理的 知識內容에 關心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心理內容 常識心理學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心理學을 공부하지 않은 一般人也 나름대로의 心理學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가지고 있다. 이를 心理學的 主觀世界라 한다면 常識心理學에서 心理過程뿐 아니라 一般人的 心理學的 主觀世界를 研究하는 일은 前者의 研究와 더불어 一般人的 行動을 研究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우리 俗談에 “때리는 시어머니 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밍다”는 말이 있다. 만일 이러한 俗談을 사실로 믿고 있는 며느리가 父母와의 싸움狀況에서 시누이가 말릴 때, 시누이의 말림을 好意的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어떻게 해서 시누이가 옆구리를 쳤을때 그 刺戟을 惡意的으로 解釋하여 시누이를 공격하는 行爲을 나타낼 수 있다. 一般人的 이러한 心理學的 知識內容을 理解하는 일은 그러한 知識이 어떠한 過程을 통해 形成되는가를 이해하는 일 못지 않게 重要하다. 普通사람들의 行動에 영향을 미치는 一般人的 心理學的 知識(學問的 心理學과 다를 수 있는)은 그 數에서 매우 많을 것이며, 그러한 知識은 機能的 自動化(functional autonomy)를 가져와 그 內容과 關係없이 그 自體로 一般人的 行動에 影響을 미칠

수 있다.

心理學的 窮極의 目的이 人間의 理解 좀 더 具體的으로 말해 人間의 行動理解와 豫測에 있다면, 위에서의 논의를 통해 봤을때 이러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心理學的 接近方法에서 人間의 心理過程에 主 關心을 둔 傳統的 學問心理學과 아울러 人間의 主觀的 世界를 重視하는 즉 人間의 心理學的 知識內容에 主 關心을 둔 脫 Heider 的인 體系的이고도 綜合的인 常識心理學的 研究가 必要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觀點에서 常識心理學的 下位領域으로 文化常識心理學, 文學常識心理學, 宗教常識心理學, 階層常識心理學, 男女常識心理學, 年齡常識心理學, 發達常識心理學 等 個人的 心理過程에 關係되는 諸般 概念 및 文化社會 構造와 關聯된 常識心理學 分野를 상정해 볼 수 있겠다.

지금까지 위에서 常識心理學이란 用語의 發生背景에서 부터 始作하여 常識心理學的 接近의 必要性을 論議하고, 常識心理學과 關聯될 수 있는 既存의 社會心理學的 理論을 考察해 보았다. 이를 基礎로 常識心理學的 性格과 特性을 傳統的 學問心理學과 比較하면서 常識心理學的 範圍를 擴張시키고 脫 Heider 的 立場 즉 廣域의 意味의 常識心理學을 定義해 보았다. 그리고 앞으로 既存의 常識心理學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領域 즉 日常人的 心理學的 內容 自體를 研究對象으로 삼는 心理內容 常識心理學을 提案하고 常識心理學的 知識 및 對象의 特性에 따른 여러가지 分類方式과 常識心理學的 內容領域을 未來展望의 立場에서 構想하여 보았다. 그러나 아직 常識心理學이 獨立된 파라다임으로 形式을 갖추지 못한 現狀況에서 常識心理學的 定義를 내리고 內容領域 등을 本稿에서 提案하고 있는 것은 常識心理學이 이러해야 된다는 當爲性을 主張한다는 立場 보다는 常識心理學을 現在의 水準에서 體系化하고 未來의 研究方向에 대한 示唆點을 提供해 보려는 假說의 概念 地圖를 構成해 보는데 있다고 하겠다. 더 나아가 지금까지는 常識心理學이란 用語가 常識心理學 自體를 獨立된 接近方式으로 구축하려는 의도 보다는 既存의 傳統學問中心的 心理學과 軌道를 달리 하는 普通사람 志向의 理論을 正當化하는 過程에서 常識心理學이란 用語를 導入해 보는 程度에 그치고 있었다. 따라서 常識心理學이 무엇이며 어떠한 接近方式을 使用하며 그 內容領域이 무엇이라는 등의 獨立된 意味의 常識心理學 自體를 論하는 努力이 매우 미흡했었다. 本稿에서는 바로 이 점에 着眼하여 常識心理學 自體를 하나의 獨立된 파라다임으로 구축하기 위한 理論的 探索을 試圖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常識心理學的 內容 및 實體 즉 常識心理學的 知識의 蓄積이 아직 미미한 狀況에서 常識心理學的 定義와 理論의 틀이 獨斷性있을 수 있음을 考慮해야 겠다.

## 參 考 文 獻

- Abelson, R. P., & Rosenberg, M. J., 1958, Symbolic Psycho-logic: a model of attitudinal cognition. *Behavior science*, 3, 1-13.
- Asch, S. E., 1952. *Social Psychology*.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 Bem, D. J., 1965, An experimental analysis of self-persuas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 199-218.
- Bem, D. J., 1967, Self-perception: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of cognitive dissonance phenomena. *Psychological Review*, 74, 183-200.
- Bruner, J. S., & Tagiuri, R., 1954, The Perception of people. In G. Lindzey(ed.),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2, Reading, Mass.: Addison Wesley.
- Cronbach, L. J., 1955, Processes affecting scores on "understing of others" & "assumed similarity," *Psychological Bulletin*, 52, 177-193.
- Dickoff, Hilda., 1961, Reactions to evaluations by another person as a function of self-evaluation and the interaction contex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uke Univ.
- Eisinger, R., & J. Mills., 1968, Perception of the sincerity and competence of a communicator as a function of the extremity of his percep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 224-232.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 117-140.
- Gerad, H. B., & Rabbie, J. M., 1961, Fear and Social Comparison. *Journal of Abnormal & Social Psychology*, 62, 586-592.
- Gross, A., 1666, Evaluation of the target person in a social influence situ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
- Hakel, M., 1969, Significance of implicit personality theories for personality research and theory.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astorf, A. H., W. R. Kite, A. E. Gross, & L. J. Wolfe, 1965, The Perception and evaluation of behavior change. *Sociometry*, 48, 400-440.
- Hastorf, A. H., Schneider, D. J., Polefka, J., 1970, *Perception*. Addison-Wesley.
- Heider, F., 1944, Social perception and phenomenal causality. *Psychological Review*, 151, 358-374.
-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herpersonal relations*. John Wiley & Sons.
- Jackson, D. N., Messick, N. S., & Solley, C. M., 1957, Multidimentional scaling approach to the perception of personality. *Journal of Psychology*, 44, 311-318.
- Jackson, D. N., 1962. The measurment of perceived personality trait relationships. In D. Wilner (ed.), *Decisions, Values, & groups*. Vol. 2, New York: Pergamon Press.
- Johnson, T. J., Feigenbaum, R., & Weiby, M., 1964, Some determinants and Consequ-

- ences of the teacher's perception of causation. *Journal Educational Psychology*, **55**, 237-246.
- Jones, E. E., & Davis, K. E., 1965. From acts to disposition.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 New York: Academic Press.
- Jones, E. E., & Harris, V. A., 1967. The attribution of attitud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 1-24
- Jones, E. E., Kanouse, D. E., Kelley, H. H., Nisbett, R. E., Valins, S., and Weiner, B., 1972, *Attribution: Perceiving the causes of behavior*. General Learning Press.
- Jones, R. A., Lindes, D. E., Kiesler, C. A., Zanna, M., & Brehm, J. W., 1968, *Internal states on external stimuli: Observer's attitude judgements and the dissonance theory-self persuasion controversy* **4**, 247-269.
- Jones, R. A., & G. R. Goethals, 1972, Order effects in impression formation: Attribution context and the nature of the entity. In Jones, E. E. & et al, 1972. *Attribution*. General Learning Press.
- Kanous, D. E., Language, labeling, and attribution. In Jones, E. E., & et al, 1972. *Attribution*. General Learning Press.
- Kanous, D. E., & Reid Hanson Jr, 1972, Negativity in evaluations. In Jones, E. E., & et al, 1972. *Attribution*. General Learning Press.
- Kelley, H. H., 1967, Attribution theory in social Psychology. In D. Levine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Kelley, H. H., 1972, Attribution in social interaction., In Jones, E. E., & et al., 1972. *Attribution*. General Learning Press.
- Kelley, H. H., 1972, Causal schemata and the attribution process. In Jones, E. E., & et al, 1972. *Attribution*, General Learning Press.
- Kelly, G., 1955, *The Psychology of Personal Constructs*. Norton & Company.
- Kelly, G., 1963, Nonparametric factor analysis of personality theories.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19**, 115-147.
- Kite, W. R., 1964, Attributions of causality as a function of the use of reward and punish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
- Koltuv, Barbara, 1962, Some characteristics of intrajudge trait intercorrelations. *Psychological Monographs*, **76** (Whole No. 552).
- Landy, D., & Aronson, E., 1968, Liking for an evaluator as a function of his discern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 133-141.
- Lay, C. H., & Jackson, D. N., 1969, Analysis of the generality of trait-inferential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2**, 12-21.
- Messick, S., & Kogan, N., 1966, *Personality Consistencies in Judgment: dimension of role constructs*. Multivariate Behaviral Research, **1**, 165-175.
- Norman, W. T., 1963, Toward an adequate taxonomy of personality attributes: replicated factor structure in peer nomination personality ratings. *Journal of Abnormal & Social Psychology*, **66**, 574-583.
- Passini, F. T., & Normar, W. T., 1966, A universal conception of personality structure?

-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4, 44-49.
- Polefka, Judith T., 1965, *The perception and evaluation of responses to Social Influenc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Rosenberg, S., Nelson, C., & Vivekananthan, P. S., 1968,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the Structure of personality impression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9, 283-294.
- Rothbart, M., 1968, Effects of motivation, equity and compliance on the use of reward and punishment.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9, 353-362.
- Schachter, S., 1959, *The psychology of affiliation*.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 Schachter, S., & Singer, J. E., 1962, Cognitive, Social, & Physiological determinants of emotional state. *Psychological Review*, 69, 379-399.
- Schneider, D. J., 1965, *The perception of approval as a function of recipient expectation and evaluator discrimination*. Unpublished mimeographed paper, 1965.
- Schneider, D. J., 1973, Implicit personality theory: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79, 294-309.
- Shapiro, D., & R. Tagiuri, 1959, Sex differences in inferring personality traits, *Journal of Psychology*, 47, 127-136.
- Shaw, M. E., & Sulzer, J. L., 1964, An empirical test of Heider's levels in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Journal of Abnormal & Social Psychology*, 69, 39-44.
- Shaw, E. E., 1967, Some cultural differences in sanctioning behavior. *Psychonomic Science*, 8, 45-46.
- Steiner, I. D., & Field, W. L., 1960, Role assignment and interpersonal influence. *Journal of Abnormal & Social Psychology*, 61, 239-245.
- Stotland, E., & Canon, L. K., 1972, *Social Psychology: a Cognitive approach*. Saunders Company.
- Streufert, S., & Streufert, S. C., 1969, Effects of conceptual structure, failure, and success on attribution of causality and interpersonal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 Strickand, L. H., 1958, Surveillance and Trust. *Journal of Personality*, 26, 200-215.
- Sluzer, J. L., & Burglass, R. K., 1968. Responsibility attribution, empathy and punitiveness. *Journal of Personality*, 36, 272-282.
- Thibaut, J. W., & Riecken, H. W., 1955. Some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the perception of social causality. *Journal of Personality*, 24, 113-133.
- Thibaut, J. W., & Kelley, H. H., 1959. *The Social Psychology of Groups*. New York: Wiley.
- Valins, S., & Nisbett, R. E., Attribution Processes in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emotional disorder. In Jones, E. E., & et al, 1972. *Attribution*. General Learning Press.
- Walters, H. A., & Jackson, D. N., 1966. *Group and individual regularities in trait inference: a multidimensional scaling analysi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 Weiner, B., 1974. Achievementmotivation and attribution theory. *Morristown*, N. J.: General Learning Press.
- Wishner, J., 1960. Reanalysis of "Impressions of personality," *Psychological Review*, 67, 96-112.